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 정 공 무 원 문 화 교 양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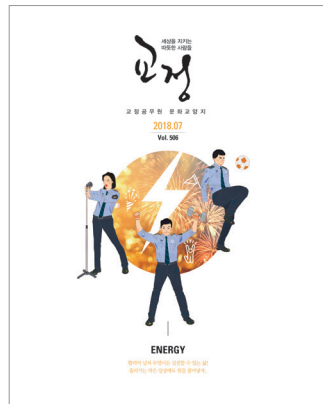
2018.07

Vol. 506



ENERGY

활력이 넘쳐 무엇이든 실천할 수 있는 삶!
흘러가는 작은 일상에도 힘을 불어넣자.



모든 생명이 성장하고 활기를 띠는
7월입니다. 씨앗이 결실을 보기 시작하고
새해에 품었던 소망이 차츰차츰 현실이
되어가는 7월. 월간 <교정>은 내일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7월호 (통권 506호) 62권 7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4 포토 이슈
김학성 교정본부장 명예퇴임식 개최 및
익산 교도소세트장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 개선 작업 완료

Colorful Think

- 08 Theme Column
7월의 컬러, ORANGE
톡 쓰는 비타민처럼 기분을 돌우다

- 10 Theme People
선의의 삶으로 향하다
치과의원 원장 박윤규

- 14 Theme Talk
서로의 활력을 나누어 갖다
대구교도소

- 18 Theme Advice
활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Cheerful Life

- 20 교정은 행복을 신고
뜨거운 여름, 태양을 닮은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원주교도소

- 26 아빠! 어디가?
우리 가족 행복 명중! 건강도 명중!
울산구치소 교위 이상민 가족

- 30 어느 멋진 날
특별한 생일, 동료들과 채운 하루
통영구치소 보안과 교사 최하림, 교도 배호준, 의료과 간호주사보 김명하

- 34 패밀리 프로젝트
낭만 가득 캠핑을 부탁해

- 36 히어로 코믹스
판지맨의 강력한 힘으로 위협에 빠진 교정맨

- 40 교정 인사이트
마음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노래'

- 42 BOOK MARK
'나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



Correction Story

- 44 교정 글마당
대전교도소 보안과 교위 황명호

- 46 교정 포커스
우리은행과 금고업무 협약 체결

- 48 교정 리포트
교정시설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 54 지상강좌
교정학

- 56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4 교정 스타그램
활력을 담은 사진 열전

- 66 이달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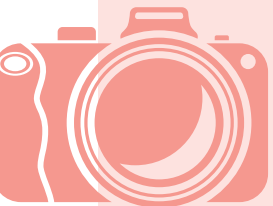


Photo Issue

푸른 잎사귀가 피어오르는 6월, 부지런히 한여름을 건너는 교정본부에는
눈여겨 볼만한 이슈들이 있었다. 특별한 의미를 남겼으며, 또 새겨나갈
이달의 교정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본다.

정리 편집실 / 사진 김도형



김학성 교정본부장
명예퇴임식 개최

김학성 교정본부장의 명예퇴임식이 지난 6월 28일 서울구치소 대강당 3층에서 진행되었다. 26년 간 교정에 몸
담았던 김학성 교정본부장을 치하하고, 제2의 인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퇴임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승
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하태훈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퇴임식에는 김학성 교정본부장의 지난 발자취가 담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재직기념
패 수여 등이 이어졌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
안 교정행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해왔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수용 처우를 확립했다”며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구성원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했다”고 김학성 교정본부장을 치하했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퇴임사를 통해 “퇴임 이후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설레는 마음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잘 펼쳐
나가겠다”며 퇴임 소감을 밝혔다.



2

익산 교도소세트장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 개선 작업 완료

익산 교도소세트장의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이 6월 29일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교정본부는 익산 교도소세트장의 내부에 마련된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의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홍보관에는 수용자 일과 및 교정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진이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교정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은 앞으로 교정 주요행사와 연계한 기획전시 등 홍보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익산 교도소세트장은 국내 유일의 영화 촬영용 교도소세트장으로 전국의 인기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2005년 이래 현재까지 250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됐다. 수용자복을 입고 독거실을 체험하는 등 교도소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매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16년 2만 6,049명에서 2017년에는 10만 2,926명으로 한 해 만에 약 4배의 관람객이 급증했다.



톡 쏘는 비타민처럼

기분을 돋운다

정성스럽게 한 꺼풀을 벗겨 한입 베어물면 입 안 가득 새콤달콤한 과육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떠올리는 것만으로 침이 돈다. 지쳐 쓰러져 있는 나에게 언제나 비타민으로 다가와 마구 활력을 선사해줄 것 같은 오렌지. 그리고 그 외피와 속살을 기운 채우는 색, 바로 오렌지다.

달콤한 것에는 오렌지가 있다

오렌지를 뽀 과일과 채소는 유독 많다. 새콤달콤한 껍은 물론이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 맛이 나는 당근, 호박, 감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맛있다고 여기는 음식도 오렌지를 따는 경우가 여럿 있다. 얼큰한 라면 국물도 대부분 오렌지며, 양념이 잔뜩 묻은 스낵 과자도 그렇다. 그래서일까. 오렌지는 입맛을 돋운다. 어떤 음식이든지 오렌지 빛으로 물든 과일이나 채소를 넣으면 더 먹음직스러워 손길이 가는 이유다. 사람이 힘을 내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일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이끄는 '활력'은 음식에서 얻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력을 상징하는 색은, 식욕을 일으키는 오렌지일지도 모르겠다. 3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피로를 줄여주는 비타민처럼 오렌지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준다.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고요하게 핀 불꽃. 예의 그 따뜻한 느낌을 가진 색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들뜨게 하는 것이다.

행복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색

아수과 화가인 마티스의 그림에서는 오렌지가 자주 표현된다. 특히, 마티스의 〈춤〉, 〈음악〉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림 속 사람들이 주황색으로 물들어져 있다. 오렌지를 통해 춤과 음악의 즐거움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한 데 손을 잡고 어우러지며 몸의 역동성을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보는 것만으로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이는 곧 오렌지가 그만큼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색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지금 우리는 활력을 잃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지속되는 업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따분한 일상 탓일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오렌지'를 내 삶 속에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이를테면 오렌지로 물든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며 각종 비타민을 섭취해보는 것이다. 에너지를 충전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활력으로 이어지고, 그 힘이 내 삶을 반짝반짝 운택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깨알 지식

'about ORANGE'

축구 강국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선수들은 주황색 유니폼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선수들을 두고 '오렌지 군단'이라고 부른다. 오렌지가 자라기에는 기온이 낮은 네덜란드가 유독 오렌지를 애용하는 이유가 있다. 오렌지는 현재의 네덜란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라네' 왕가를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이다. 축구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오렌지 빛으로 대동단결한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오렌지 왕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ORANGE
7월의 컬러

치과의원
원장

박
윤
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분위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서글서글한 미소를 띠는 박윤규 원장이 그런 사람이었다. 차분한 어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만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함이 묻어났다. 매주 두 번, 교도소로 향하는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깃들어있을지, 그 마음을 굳이 꺼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선의의 삶으로 향하다



법무부 장관 표창패

치과의사, 교도소를 가다

박윤규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 데스크 아래에는 ‘매주 화·금요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창원교도소로 진료 갑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치과를 방문하는 손님이라면 으레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를 일이다. 가장 손님이 몰려분주할 시간에 교도소로 향하는 치과의사는 어딘지 낯선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 평범하지 않은 길을, 박윤규 원장은 적지 않은 시간 걸어오는 중이다. 벌써 18년째, 교도소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건네받은 것이 교도소와 인연을 맺게 된 시작이었다.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가 있는데, 틀니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용자들을 위해 무료로 틀니를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교도소로 향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수용자’에 대해 갖는 선입견이 저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수용자도 그냥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 역시 사람이고, 환자라면 제가 진료를 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용자의 틀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시간이 흘러 보철 치료와 충치 치료도 진행했다. 지난해 창원교도소의 치과주치의가 되고부터는 보통의 사람들도 받기 힘든 임플란트와 스케일링도 해주고 있단다. 병원 직원들

4명과 팀을 꾸려 매주 두 번 3시간씩 교도소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는 그는, 진료를 보는 데 필요한 장비까지 최근 새롭게 보완했을 정도다.

점심을 먹고 잠깐 눈이라도 붙일 수 있는 휴식시간까지 반납해가며 진료를 보러 교도소로 향하는 그다. 쉬운 길이 아니다.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마음을 나누고 봉사를 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을 구분한다면 봉사나 나눔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수용자라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수용자들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도움이 더 절실한 경우도 있고요.”

현재까지 박윤규 원장의 진료를 받은 수용자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진료를 해준 수용자들에게 진료비를 받는데, 다시 그 돈을 모아 영치금으로 교도소에 기부하고 있다. 때때로 교도소 내 화단 조성을 위한 비용을 전하기도 했고, 지난 설에는 전체 수용자에게 한과를 선물하기도 했다. 여름이 되면 수용자들을 위해 만 병이 넘는 생수를 돌리기도 한다고 하니, 그가 행하는 선의가 어느 깊이인지 짐작이 간다. 수용자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실천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

박윤규 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이 참 좋다고 했다. ‘남을 진료한다’는 의사의 본분이 그 자체로 이타적인 행동이기에, 의사라는 직업과 봉사가 가까이 맞닿아 있는 터다. 그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였다. “남에게 베풀고 봉사를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것.

물론 그가 학창시절부터 의사를 꿈꿔왔던 것은 아니다. 그의 일생을 바꿔놓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다.

그가 스무 살이 되던 해였다.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 서울기관차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 그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작은 사고는 아니었다. 그 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잃은 그는 수술을 받아 의족을 달아야 했다.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지요. 저는 그때 덩으로 또 하나의 삶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예기치 못한 불운으로 세상을 뒤흔들지 않았다. 살아남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신과 약속한 그는, 그 쉽지 않은 약속을 무던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수용자를 위해 교도소를 향하는 것뿐이 아니다. 매년 4회씩 해외봉사를 직원들과 떠나기도 하고, 경로잔치에 후원금을 전하기도 한다. 지난해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터티에 회원으로도 가입돼 있다. 익명으로 기부했지만, 이름을 밝히는 기부가 나눔문화 형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공동모금회의 설득에 기부 사실을 공개했다.



수용자와 쌓아 올린 마음들

박윤규 원장은 자신이 수용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수용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이 가기 마련이다.

박윤규 원장은 인터뷰 도중 원장실 책상 옆에 놓인 독서대를 보여줬다. 진짜 나무를 깎아 결이 촘촘히 살아있는 독서대는 그의 진료를 받은 수용자가 그를 위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뒤편 책꽂이에 다발로 놓인 많은 편지들, 수용자들이 직접 손으로 쓴,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들이다.

“편지를 다 읽어봐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마음이랄까요. 물론 계획적인 범죄,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죄를 저지른 그 찰나를 참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그 찰나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겠지요. 교도소에 가면, 스무 살이 막 넘은 젊은 친구들도 봅니다. 특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수용자들이 어떤 경위로 교도소에 오게 됐는지는 제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수용자와 대면하면서 ‘수용자들도 그냥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수용자를 진료하면서 ‘어떤 계기로 교도소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물음도 던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 역시 그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지만, 답을 들었을 때 스스로 선입견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물음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저는 수용자를 그냥 환자로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경위로 교도소에 오게 됐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박윤규 원장과 수용자들의 관계는 편하다. 서로 장난도 치고 농담을 주고받는다. 수용자들이 박윤규 원장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손수 써 내려가는 이유다.

박윤규 원장은 교도소 직원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도 웃으면서 전했다. 자신이 수용자들의 다양한 치과 진료를 맡고 있는데, 그때마다 수용자 관리 등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의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럼에도 늘 자신을 반기는 교도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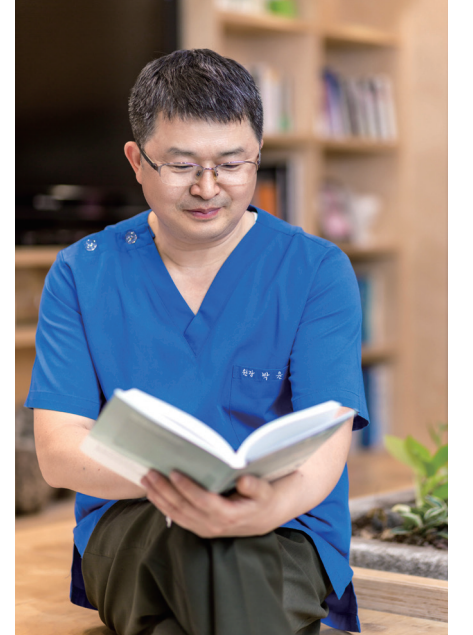


원대하지 않은 꿈

박윤규 원장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다. 앞으로도 오늘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입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진료를 해주는 것, 나누고 봉사하며 남을 생각하는 것. 최근에는 봉사를 좀 더 ‘명분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단법인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를 잘 운영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기회를 봐서 혹은 상황이 되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받는 쪽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박윤규 원장의 내일은 어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해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리라는 다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삶의 중요한 고비에서 진로를 바꾼 그는, 그렇게 오래도록 주변의 삶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의 활력을 나누어 갖다 대구교도소

근무를 할 때 ‘활력’을 주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잘 정돈된 쾌적한 사무실, 달콤한 휴식 시간, 내 일을 도와주는 동료들.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다.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그것을 곳곳이 이겨내는 의지와 열정. 대구교도소 직원들의 마음이 그렇다. 녹록지 않은 근무 환경이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누구보다 힘찬 하루를 맞고 있다.

긴 역사를 품은 대구교도소

대구교도소는 1908년 개청되어 100여 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냈다. 일제강점기 당시 삼덕동으로 기관을 이전하며 대구형무소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가 광복 후 1961년, 지금의 대구교도소로 불리게 되었다.

역사가 깊은 만큼, 규모가 작지 않은 대구교도소는 수용자 수가 많다. 그럼에도 교도소에 큰 잡음이 없는 이유는, 수용자들을 대하는 대구교도소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김재현 교위는 수용자에 대해 “그래도 안아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수용자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을 자식에게 다시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대구교도소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늘 관심과 사랑으로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김재현 교위는 “가족과도 멀어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수용자들이 마음 편히 기낼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교정공무원”이라며 “대구교도소 직원들은 수용자를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수용자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따끔하게 주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끈끈한 결속력으로 화합하다

김재현 교위는 “우리 대구교도소 직원들은 하루하루를 역동적이게, 밝게 웃으며 생활하고 있다”며 활력 넘치는 대구교도소 직원들을 칭찬했다. 노후화된 건물, 과밀 수용, 많은 업무량 등 갖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돕고 배려하며 지낸다는 것이다. 그는 “힘든 환경이 우리 직원들을 더욱 끈끈하게 단결되도록 만들어 준 것 같다”며 대구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았다.

직원들 간 결속력이 높은 덕분에 대구교도소는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대구교도소의 검도부가 대표적.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에 출전할 만큼 국가대표 실력을 갖춘 검도유단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호회다.



“대구교도소 직원들은
수용자를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 본선에 진출한 축구부와 현재 플레이 오프경기를 준비 중인 야구부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동호회다. 김재현 교위는 야구부의 주장으로 동호회에 대한 애착이 특히 크다.

대구교도소 직원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동호회를 통해 활력을 주고 받고 있다.



수용자의 건강 관리에 힘 쏟다

대구교도소는 다른 소에 비해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는 수용자가 많다. 따라서 수용자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교도소 내에 의사사무관과 혈액투석실을 배치해 혈액 투석이나 급한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수시로 아픈 수용자는 없는지 중환자들의 병동과 수용 거실을 거둬 확인하며 수용자의 상태를 살핀다. 마음에 상처를 가진 수용자에게는 따뜻한 조언과 격려, 꾸준한 보살핌도 아끼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노인 수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최근에만 수용자 7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용자 1명이 입원할 경우 3명의 교정공무원들이 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입원 절차부터 환자 계호 등의 병원 업무를 진행하고 교도소 내 업무까지 처리하려면 늘 일손이 모자란 상황. 이런 바쁜 일정이 매번 반복되면 예민해질 법도 하지만, 직원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함께 일을 나누고 배려하면서 활기차게 근무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박호서 소장은 직원들의 고된 근로를 알기에 직원들을 자주 격려한다. 수용자 7명이 병원에 입원하여 업무가 과중됐던 날에는 박호서 소장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찾아가 커피와 함께 따뜻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교정·교화에 힘쓴 결과를 보상받듯, 보수와 재건축을 반복했던 노후화된 대구교도소는 2019년 하반기 새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이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새 교도소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대구교도소 직원들이 새로운 건물이 주는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길 기대해본다.

Theme Talk

활력을 얻는 비법은?



교감 김지영

교위 김재현

교위 신해정

대구교도소는 기본적으로 다른 소에 비해 수용자가 많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선배들을 볼 때 저도 힘이 납니다. 이에 바쁜 업무 속에도 여유를 가지고 항상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와 팀원들이 매우 밝고 활기차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즐거워집니다. 모두 서로를 잘 보조해주는 만큼 소 분위기도 좋고요. 활력 넘치는 총무와 직원들 덕분에 저도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행복이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이의 친구 엄마들과 함께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것, 가족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 등이죠. 아주 사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에서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위 최승민

교사 손동욱

교사 이지원

저의 가장 큰 활력소는 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통해 저는 언제나 든든한 힘을 얻습니다. 일상을 보내면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활력을 얻는 비법입니다. 제 동료들 역시 좋은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활력 있는 삶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악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커피나 차 마시기 등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은 요즘 자주 캠핑을 하러 갑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족과의 캠핑을 통해 털어내고 있는 것이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활력도 찾고 있습니다.

대구의 가 볼만한 곳

대구 수성못유원지

수성못유원지는 1925년 일제강점기에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조성된 둘레 2km의 인공 연못이었다. 지금은 바늘꽃, 연꽃, 갈대 등이 어우러진 수변 데크 로드, 울창한 왕벚나무, 버드나무 등의 가로수길이 펼쳐지면서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수변 산책과 분수 쇼 관람이 가능하며, 하루 4회 영상음악 분수가 가동되어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든다. 주변에 유람선, 바이킹, 범퍼카, 회전목마 등의 놀이시설을 갖춘 수성랜드가 어우러져 특히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이범수)



김광석 거리와 방천시장

‘이등병의 편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나의 노래’, ‘서른 즈음에’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광석.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출생지이기도 한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조성되었다. 골목 벽마다 그가 노래했던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 구절, 그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에 그 길을 거니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의 명곡들을 따라 부르게 된다. 근처에는 1945년 해방 후 일본과 만주에서 온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며 생성된 방천시장도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쇠퇴하다가 김광석 거리와 더불어 문화예술가들이 몰리며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김지호)



활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나의 어제를 성찰하다

활력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활력을 잃는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우울해지곤 한다. 파이팅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살아감으로써 힘을 잃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는 놓이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자기관리법을 컨설팅하고 있는 가브리엘 슈퇴거는 일상을 유지할 에너지를 잃었다면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우리가 활력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들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퇴근 후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TV를 켜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TV 볼 때의 심전도나 뇌파가 회의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거의 맞먹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폭력적인 영화가 에너지를 오히려 빼앗아 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피로할 때 더 폭력적인 영화를 찾는다.

사전은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에너지를 ‘잘’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과도한 업무와 반복되는 일상으로 힘이 쭉 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ENERGY

활력이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운 도전과 대면할 때조차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어떤 일에 지치는지 어떤 일을 하면 활력을 얻는지 깊이 따져보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오늘을 살다 보니, 활력을 주는 것과 빼앗아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에 문제를 담아두지 않기

우리는 주변에 ‘활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테면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꼬여버린,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다.

고민을 내면에 묻어버리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들어줄 여유나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버린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가까운 친구 중 한 명만이라도 함께 대화하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인다고 믿어야

우리는 자신의 회사나 집에서 보내는 일상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짐을 덜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일기에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일기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해줄 것이다. 자신의 감정, 소망, 열망 등을 모두 적자. 종이에 간단히 그것들을 풀어내면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활력이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운 도전과 대면할 때조차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말이 있다. 매 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오늘부터라도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태양은 열기를 더하고 대지는 한껏 뜨겁게 달아오른다. 녹음은 점점 짙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에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원주교도소’를 찾았다. 아름다운 연주와 짜릿한 승부, 신나는 놀이와 맛있는 먹거리가 함께 했던 열정적인 현장을 소개한다.

뜨거운 여름 태양을 닮은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원주교도소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행복한 이벤트!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한 2018년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2018년 상반기기를 보내고 하반기기를 향해 또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원주교도소를 찾았다.

원주교도소는 60여 명의 무기수를 포함해 S3급 수용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를 대비해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2018년 상반기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직원들 역시 고생이 많았다. 연령대가 높은 수용자들이 많다 보니 건강 이상으로 응급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거친 수용자들을 다루면서 직원들이 유독 애를 많이 썼다. 원주교도소 신동운 소장을 비롯한 271명의 직원은 ‘수용자들을 교정, 교화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의 이웃,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 왔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그래서 더 기뻐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혹여나 준비한 행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행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맑게 갠 하늘에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시원한 빗줄기 덕분에 바람이 제법 선선했다면서 “역시 교정본부에서 행복을 신고 온 것이 분명하다”는 원주교도소 직원들, 이번 ‘교정은 행복의 신고’의 주인공은 여름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원주교도소 직원들이다.

한여름의 로맨틱한 음악회

원주교도소의 작은 정원이 ‘교정은 행복을 신고’를 위한 특별한 무대로 변신했다. 푸른 잔디 위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천막과 파라솔이 자리하고, 그럴싸한 간이 무대도 준비됐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행사장을 찾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하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의 첫 순서는 원주교도소 음악동호회 ‘어울림’의 공연. 박우균 교사와 김응열 교도가 선보인 플루트와 기타의 멋진 하모니는 물기를 머금은 공기를 타고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전날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느라 목이 쉬었다는 박영재 교위는 라디오헤드의 ‘creep’을 멋진 목소리로 소화했고, 최용준 교사는 색소폰 연주를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펼쳤다.

어울림을 이끄는 황상철 교위는 “저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면서 직장생활의 활력을 얻는 것처럼, 오늘 어울림의 연주가 함께 한 직원들에게 행복과 활력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싱그러운 여름 향기를 머금고 불어오는 바람과 곳곳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어울림 멤버들의 아름다운 연주가 함께 했던 시간. 연주를 하는 이도 듣는 이도 맘껏 행복했던 멋진 무대였다.



무더위도 날려줄 치열한 진검 승부

여름날의 로맨틱한 음악회를 즐겼으니, 이제는 치열한 승부를 펼쳐볼 시간이다. 원주교도소 테니스장에서는 ‘신동운 소장 and 이재홍 교정관 vs 원주 국화부 테니스팀’의 한판 대결이 벌어지는 중이다.

“원주교도소에서 매주 금요일에 테니스장을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해주셔서, 팀원들과 감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원주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원주교도소에 감사하죠.” 국화부 테니스팀의 허찬화 회장은 “원주교도소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교도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편견도 조금씩 사라졌다”면서 “오늘 특별한 축제의 현장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신동운 소장 역시 “바쁘신 일 정에도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원주교도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서로에 대한 감사와 칭찬 속에서 시작된 경기. 막상 경기 휘슬이 울리자 두 팀 모두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고수들의 대결에 테니스공이 쉴 새 없이 네트를 오가고 어느새 몰려든 관중들의 눈동자도 공의 움직임을 따라 바쁘게 움직인다. 치열한 승부 끝에 국화부 테니스팀이 승리를 거머쥔 가운데, 테니스장 옆에서는 보안팀과 사무팀의 축구 경기가 한창이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보안팀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경기는 15:15로 팽팽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한여름의 더위도 승리를 향한



이들의 ‘열정’ 앞에서는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 뛰고 또 뛰고 공의 움직임에 몰입해 온 몸을 던지는 직원들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한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명승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는 사무팀의 김면삼 공업서기다. 김면삼 공업서기가 상대의 허를 찌르는 강슛을 성공시키자,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석에서는 아쉬움의 탄식과 기쁨의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최종 결과 21:19로 사무팀의 승리. “객관적인 전력은 보안팀이 우세하지만, 우리 축구 대표팀이 독일을 이긴 것처럼 승리에 대한 집념만 있다면 사무팀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던 신동운 소장의 예상이 적중한 순간이다.

“먼저 승리한 사무팀에게 축하를 보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진검 승부를 펼치자”는 보안팀과 “보안팀도 멋진 경기를 펼쳤다”면서 보안팀의 도전을 흔쾌히 받아준 사무팀. 이제는 승자와 패자 모두가 함께 즐길 시간만 남았다.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즐겼던 행복한 시간

멋진 승부를 펼쳐준 선수들과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직원들을 위해 푸짐한 먹거리가 준비됐다.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땀 흘린 후 맛보는 치킨과 피자의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무더위 속 갈증을 날려줄 시원한 콜라와 직원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신선한 생과일주스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근무 중이라 함께 하지 못한 동료들의 몫을 따로 챙기는 모습에서 원주교도소의 끈끈한 정이 오롯이 느껴진다. 일하면서 겪었던 수고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속에서 간식을 먹다 보니 빠른 속도로 간식이 사라진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됐다. 5명씩 팀을 이뤄 봉을 쓰러뜨리지 않고 자리를 옮기는 일명 ‘봉대봉’ 게임은 개개인의 순발력과 팀원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임이다. 첫 번째 팀은 노동기 교감을 필두로 한 고참팀으로, “우리 팀은 나이가 많다”는 걱정이 무색하게 무려 9회의 이동을 성공시켰다. 정병석 교감팀이 3회, 직업훈련과팀이 4회를 성공시킨 가운데, 자신만만하게 게임에 임했던 신동운 소장팀은 1회 만에 탈락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 ‘국화부 테니스팀’도 4회 성공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원주교도소의 젊은 피들로 구성된 ‘막내팀’이 도전에 나섰다. 젊음의 패기가 9회를 성공시킨 고참들의 노련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모아졌다. 성공 횟수가 늘어갈수록 현재 1위인 고참팀의 얼굴에 초조함이 역력하다. 막내팀의 결과는 7회. 우승을 차지한 고참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노동기 교감님과 팀원들께서 상품권을 저희 어울림 밴드에게 양보해주셨습니다. 약기를 구입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울림 멤버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로 했다. 기타와 색소폰, 보컬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이 ‘교정은 행복을 신고’의 마지막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무과 교정관 유기용

원주교도소가 '교정은 행복을 신고'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맘으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오전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걱정이 한 가득이었는데, 행사 시작과 함께 맑게 갠 하늘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오늘 많이 웃고 즐기며 얻은 에너지로 올 여름도 '교정'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교사 최용준

우리 원주교도소에서 '교정은 행복을 신고'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연차 중에도 색소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아름다운 연주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색소폰 선율처럼, 수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교정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감 정병석

39년의 교정공무원 생활 중 34년을 이곳 원주교도소에서 보내고,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니 아쉬운 점도 많지만, 저보다 더 멋진 후배들이 있기에 안심하고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먼저 교정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한 마디 전하자면, 후배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 우리가 입은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교사 조찬우

교도관이라고 하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교도관들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자랑스러운 부모이며 소중한 친구입니다. 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편견 없이 바라봐주세요.



교도 최규완

2018년 4월 9일에 교정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원주교도소의 막내 교도입니다. 어린 시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했고, 교정공무원의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기에 부족한 점도 많지만, 선배님들처럼 바른 교정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활력을 선사한 경기와 즐거운 게임,
그리고 맛있는 간식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로 하루를 보낸
직원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원주교도소



오늘 가장 신이 난 사람은, 울산구청소 이상민 교위의 큰아들 수찬이다. 안산에 사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울산구청소에서 근무하는 아빠를 한 달에 두 번밖에 만날 수 없는 6살 수찬이에게 아빠와 함께 체험 활동을 하는 오늘은 크리스마스보다, 생일보다 기쁜 날이다.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한 양궁카페 나들이는 수찬이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 특별한 의미를 남긴 현장을 뒤 따라가 보자.



양궁카페 체험

우리 가족 행복 명중! 건강도 명중!

울산구청소 교위 이상민 가족

생애 처음으로 화살을 쏜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베어아치리 양궁카페에 들어서자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올림픽에서나 보던 크고 묵직한 활을 이용해 신중하게 화살을 쏜 뒤 그 살이 과녁 중심에 맞으면 환호성을 지르는 손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채로웠다. 이상민 교위 가족을 기다리며 느낀 실내 양궁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집중력과 재미를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실내스포츠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운동이었다.

약속한 시간이 열두 가까워 오자 저 멀리서 신나게 뛰어 들어온 사람은 수찬이와 수찬이의 동네친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상민 교위와 아내 김선희 씨, 엄마의 품에 안긴 효주가 따른다. 모두가 양궁카페 방문이 처음이고, 물론 활을 만져보는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일까. 엄마, 아빠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기분 좋게 엇갈린다.

양궁카페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 양궁 자체가 정제된 마음으로 활시위를 겨누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함께 활을 쏘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것. 특히 연습장을 가로로 질러가는 것은 절대 금지다. 다행히 수찬이와 수찬이의 친구는 기특하게 이 규칙을 잘 지킨다.

먼저 수찬이와 친구가 활쏘기를 배워보기로 했다. 양궁을 가르치는 직원이 친절하게 차근차근 가르쳐주니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는 게 이곳 양궁카페의 특징이다. 직원이 꼼꼼하게 수찬이와 친구의 팔다리 자세를 잡아주고 암 가드도 채워준다. 활을 쏘고 당긴 뒤 한쪽 눈을 감고 쏘야 한다는 말에 두 꼬맹이가 연신 어설픈 윙크를 해대니 지켜보는 어른들 모두가 그 귀여움에 그만 웃음이 터진다.

하루빨리 함께 하리라는 다짐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수찬이에게 즐거운 오락시간이지만 이상민 교위와 김선희 씨에게는 애뜻하고 소중한,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다. 안산과 울산이라는 먼 거리를 오가는 남편과 살림은 물론, 혼자서 오롯이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아내에게 모처럼의 힐링과 즐거움을 모두 선사하는 하루기 때문이다.

“세 살배기 딸 효주가 지금 뇌종양으로 투병 중입니다. 작년에 부산병원에서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와 아이들이 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 대형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야 하고 또 이곳에 처가댁이 있거든요. 효주가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수찬이를 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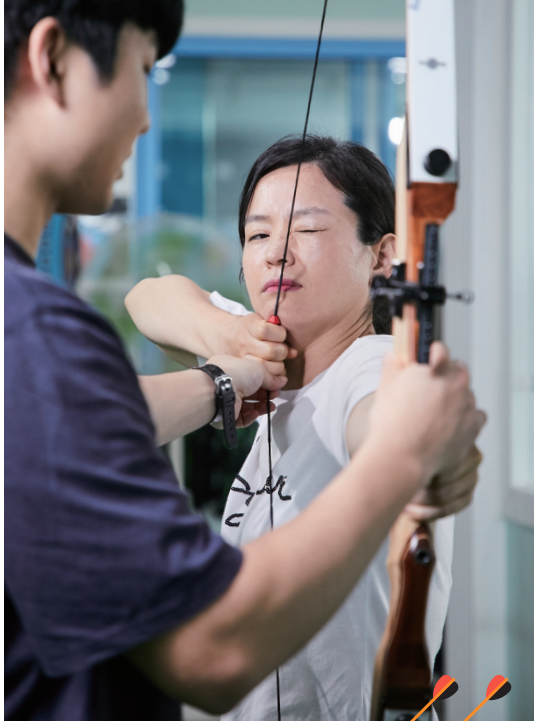
이상민 교위는 그래서 애가 탄다. 살림과 육아, 딸의 병간호까지 혼자 전적으로 떠맡고 있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2주마다 한 번씩 올라와 바깥 집 안일을 돕고 아들을 위해 열심히 놀아주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전출을 신청했지만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 말이나 되어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교위가 이야기 중간에 문득 옆으로 돌아본다.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효주를 연신 어르고 달래는 아내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그새 찾아든 고단함과 피곤함에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모양새다. 어느새 옆에 와 음료수를 마시던 수찬이가 해맑은 얼굴로 아빠 팔을 잡아끌었다. 주말이면 “심심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가 모처럼 아빠와 함께 놀게 됐으니 얼른 아빠가 화살을 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수찬이 덕분에 이상민 교위도 과녁 앞에 서서 활을 잡아본다.

‘핑-’하는 소리와 함께 생각보다 크게 화살이 과녁에 탁, 하고 꽂힌다. 파란색 라인에 들어선 화살을 보고 수찬이와 친구는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탄성을 내질렀다. “생각보다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다”는 이상민 교위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신기한 듯 입꼬리를 올린다.



효주가 잠시 기분이 좋아진 틈을 타서 이번에는 아내 김선희 씨도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늘 동생을 업고 안고 다니던 엄마가 활을 잡자 가장 신기해한 사람은 수찬이다.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서서 엄마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쳐다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김선희 씨 역시 탁, 소리와 함께 무리 없이 과녁에 화살을 명중시킨다. 부부에게 양궁을 가르친 직원이 “두 분 다 초보이지만 굉장히 자세가 좋고 집중력이 좋다”며 감탄을 금치 못한다.

가족의 희망을 정조준하다

다시 수찬이가 활을 잡아 보기로 했다. 자기 키만 한 활에 겁을 먹고 자꾸 뒤로 빼는 아들을 데리고 이상민 교위가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한다.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달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니 수찬이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한다. 비록 아빠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법 그럴싸하게 활시위를 당긴다. 활이 ‘피웅-’하고 날아가자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쳐준다.

양궁 카페에 처음 방문한 이상민 교위 가족. 열심히 연습한 끝에 결국 과녁의 정중앙을 맞히는 데 성공한 이 가족이 일상에서도 건강과 행복 모두 10점 만점을 맞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양궁을 처음 해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올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고생하는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픈 딸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교정본부에 감사드리고 늘 옆에서 힘이 돼 주는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TIP

베어아처리 양궁카페

안산에서 처음 생긴 양궁카페다. 어린이용, 여성용 등 다양한 화살이 배치돼 누구나 양궁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전화번호 031-483-8884

위 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99 롯데프라자

영업시간 평일 14:00 ~ 23:00 /

주말 · 공휴일 13:00 ~ 24:00

이용요금 1시간 15,000원 / 30발 10,000원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월간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메일 주소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특별한 생일, 동료들과 채운 하루

〈통영구치소〉

보안과 교사 최하림, 교도 배호준, 의료과 간호주사보 김명하

사람에게는 누구나 좋은 일들이 몰리는 시기가 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여러 행운들이 한 겹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빛나는 전성기. 여기, 그 시절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대구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배호준 교도다. “요즘 좋은 소식이 많이 찾아와 자주 웃게 된다”는 그가 동료들과 함께 웃음을 나눈 하루를 살펴보자.

아기 천사와 함께 전해진 행운

‘어느 멋진 날’ 팀은 서울에서 4시간 30분을 달려 청량한 해풍이 부는 도시 통영에 도착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배호준 교도. 동료들과 영화나 연극 등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었지만 늘 고된 업무로 계획을 미루던 그는, 월간 교정의 ‘어느 멋진 날’ 페이지를 보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시간이 흘러 응모를 했던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던 즈음에 ‘어느 멋진 날’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그는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기분이 더 좋았단다.

배호준 교도는 소중한 동료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와 재밌는 영화를 즐기기로 했다. 일정을 함께할 동료는 보안과 최하림 교사와 의료과 김명하 간호주사보다. 최하림 교사는 보안과에서 배호준 교도와 동고동락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해주는 선배이며, 김명하 간호주사보는 배호준 교도의 실제 고종사촌 형으로 누구보다 그와 가까운 사람이다. 무뎠던 성격의 최하림 교사와 김명하 간호주사보는 동갑내기엔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금세 친해졌다. 배호준 교도를 중심으로 함께 뭉쳐 다니는 세 사람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세 사람이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영화관이다. 한창 인기리에 상영 중인 〈쥬라기 월드〉를 예매한 배호준 교도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어떤 영화가 재밌는지 물어보니 〈쥬라기 월드〉를 추천받았다”며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전했다.



어느 멋진 날은 교정의 여러분께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만극이 있다면 지금 아래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 yjm219@korea.kr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지금처럼

재밌게 영화를 관람하고 자리를 옮긴 곳은 갈빗집이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유쾌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최하림 교사는 세 사람이 함께했던 추억에 대한 질문을 받아 “육지 토박이여서 바다가 있는 통영에 와 문어 낚시를 처음으로 했다”며 “셋이서 선 회기를 타고 문어를 잡았는데, 약 10마리 정도 잡았었다. 세 사람 모두 낚시에 대한 재미를 느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명하 간호주사보는 “근무일 때는 긴장의 연속이지만 휴식을 취할 때는 늘 활기차게 지낸다”며 즐거운 에피소드 하나를 털어놓았다.

“2017년 법무부 장관기 무도대회 때예요. 배호준 교도가 검도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검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저와 최하림 교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승리하라고 일러주었죠. 배호준 교도가 소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했는데요. 호구를 쓰고 있어 경기가 끝났다는 심판의 말이 들리지 않았는지, 상대와 떨어지라는 심판의 말에도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회를 관람했던 사람들이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이후 배호준 교도는 통영구치소 내에서 ‘볼꽃 남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한다. 그의 승부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화다.



“근무일 때는
긴장의 연속이지만
휴식을 취할 때는 늘
활기차게 지냅니다”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쓰다

어느 멋진 날 팀은 생일을 맞은 배호준 교도를 위해 식사가 끝난 후 생일 케이크를 전달했다. 덕담을 주고받은 최하림 교사와 김명하 간호주사보는 진심으로 배호준 교도의 생일을 축하했다.

최하림 교사는 “배호준 교도는 선·후배 모두에게 허물없이 대하며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며 “힘든 일이 있어도 술 한 잔에 털어버리는 대인배”라고 배호준 교도를 칭찬했다. 김명하 간호주사보 역시 “늘 교정에 웃음을 주는 분위기 메이커”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오늘을 함께한 소감을 묻자 김명하 간호주사보는 “사진을 촬영하는 등 새로운 경험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하림 교사 역시 “배호준 교도 덕분에 교정지에 얼굴이 실린다”고 활짝 웃어 보였다.

오늘의 이벤트를 신청한 배호준 교도는 “잊지 못할 생일이 되었다”며 “사회복지사 전공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특채로 교정직에 입사했다.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갖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쓰는 교정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뜻 깊은 날에 함께 추억을 나눈 세 사람. 이들의 우정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서른다섯 평생에
이런 날이 또 있을까요?”

교도 배호준

저에게는 이 하루가 잊지 못할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주일 전에 태어난 우리 둘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기도 했고, 제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소중한 동료들과의 추억으로 특별한 하루를 장식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여름 캠핑

바캉스를 계획할 때, 대개 두 가지 부류로 나뉘기 마련이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한, 자연 캠핑을 좋아하는 낭만파와 시원하고 쾌적한 곳을 찾아 떠나는 피서파다. 그렇다면 낭만파와 피서파 모두 만족할 방법은 없을까. 여기, 낭만과 피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캠핑법들이 있다.

첫 번째 캠핑 법은 ‘오토캠핑’이다. 오토캠핑은 자동(Auto)과 야영(Camping)이 더해진 합성어로, 자동차를 타고 여행지에서 야영을 즐기는 캠핑을 의미한다. 텐트의 낭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텐트를 접고 펴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우천 시에 즐길 수 있다는 이 점은 덩이다.

두 번째 캠핑법은 ‘카라반 캠핑’. 이동식 주택이란 뜻을 가진 카라반 캠핑은 오토캠핑과 비슷한 형태로 집과 비슷한 구조를 갖추었다. 취사를 할 수 있는 주방은 물론, 화장실, 침대가 있어 내 집에서 생활하듯 편하게 캠핑을 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램핑’이 있다. 글램핑은 오토캠핑, 카라반 캠핑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화려함(Glamorous)과 야영(Camping)의 합성어로 이뤄진 글램핑은 고급화된 캠핑을 뜻한다. 이미 북미나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글램핑은 자연 속에서 트레킹이나 수영, 승마, 사냥 등 고급 레저를 체험하고 야외 바비큐 디너를 즐기며 아늑하게 꾸며진 잠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캠핑 방식이다. 캠핑을 위한 그 어떤 준비도 필요 없어 마음도 몸도 편하다.



낭만 가득 캠핑을 부탁해

활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계절이 찾아 왔다.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요즘이다. 이럴 때 더위를 잊게 하고 여름밤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여름 캠핑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산뜻한 바람이 불고 청량한 계곡물이 흐르며 자연의 소리로 가득 찬 캠핑지에서 말이다. 오롯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낭만 가득한 여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이 펼쳐지는 폐교 캠핑장

캠핑을 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부담된다면, 좋은 선택지가 있다. 아동 인구 감소로 지방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폐교 여섯 곳을 캠핑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체험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진 캠핑장을 만든 것이다. 서천, 제천, 철원, 포천, 함평, 횡성까지 여섯 곳에 캠핑장이 위치해 있다.

이들 캠핑장은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4인 가족 1박 2일 기준으로 25,300원(2018년 6월 기준)이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다. 캠핑장에는 텐트와 화덕, 피크닉 테이블도 무료로 제공돼 편리성이 높다.

서천 금빛노을 서울캠핑장은 숲 내음이 가득한 캠핑장이다. 근처 바닷가를 시작으로 국립생태원, 장항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관광지가 접목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다.

제천 하늘프레 서울캠핑장은 넓은 운동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배드민턴, 족구 등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용이하다. 주변 관광지로 의림지, 월악산, 박달재 등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철원 평화마을 서울캠핑장은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해있다. 근처에 백마고지, 고석정 등 역사의 발자취가 새겨진 관광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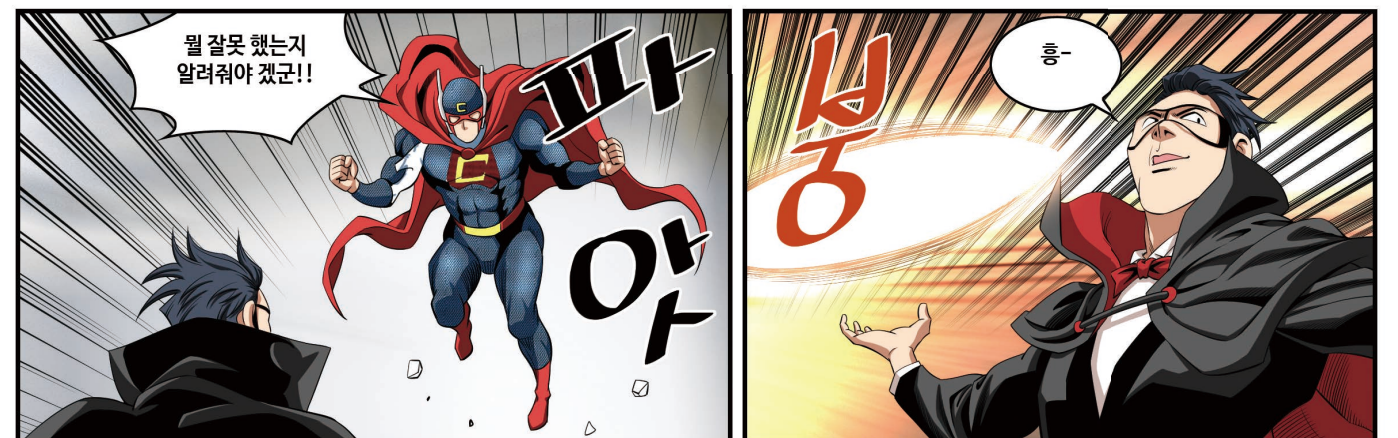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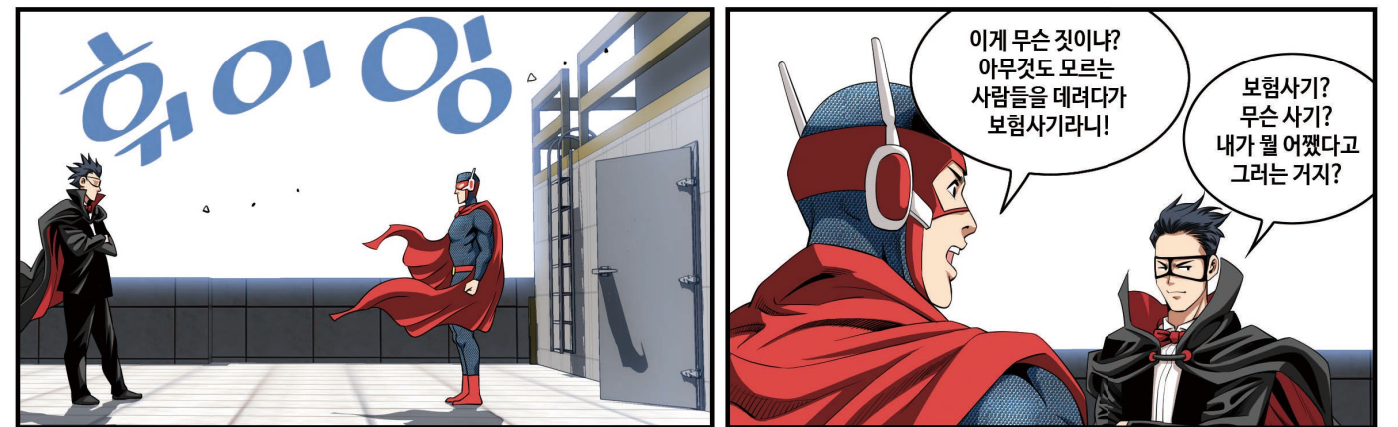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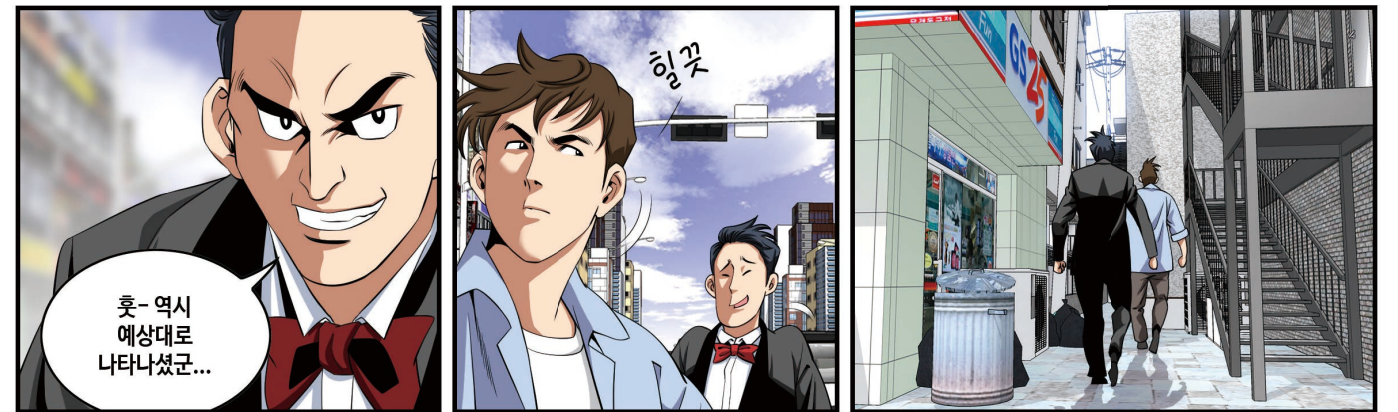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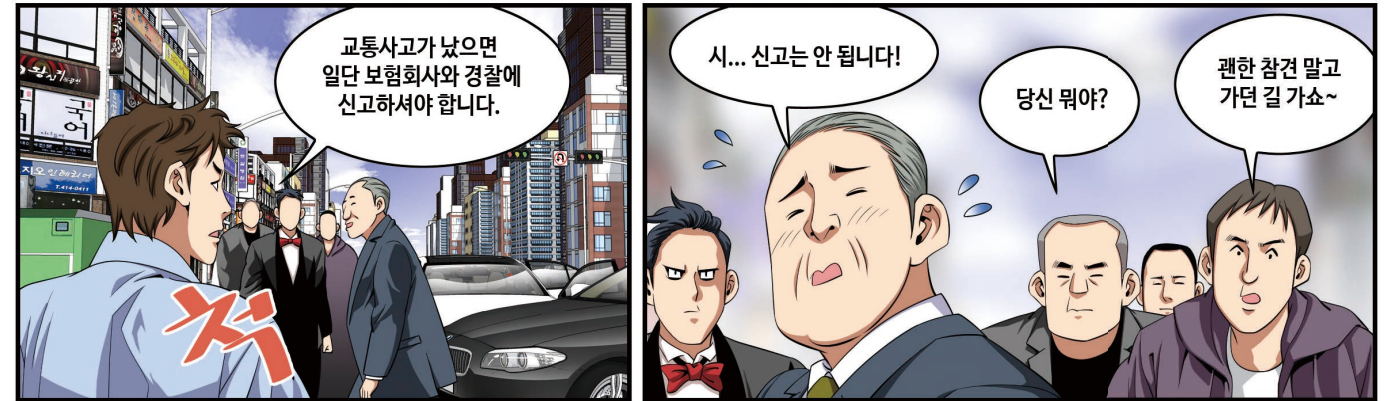
포천 자연마을 서울캠핑장은 간이 수영장이 설치돼 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머금은 한탄강과 산정호수가 인접해 있는 것 역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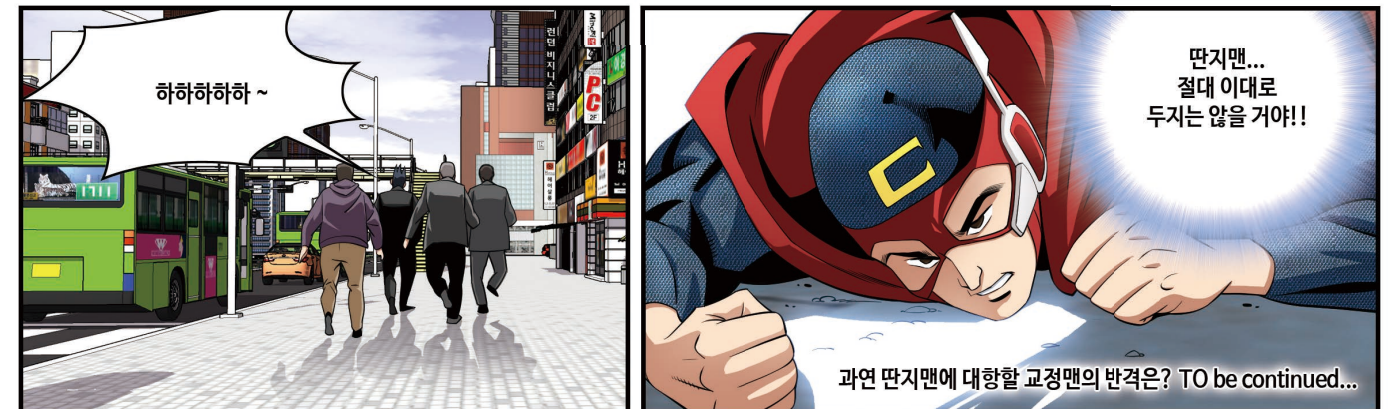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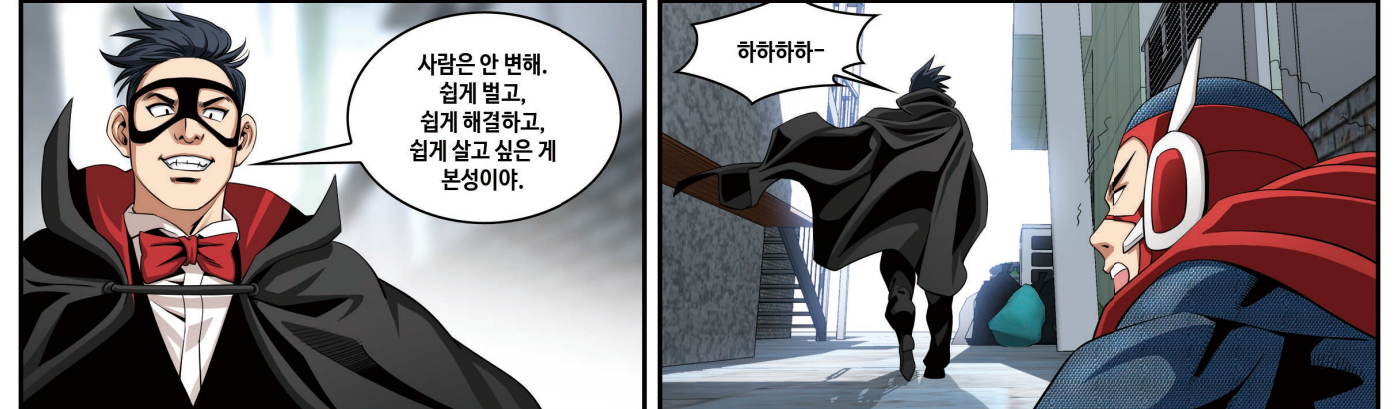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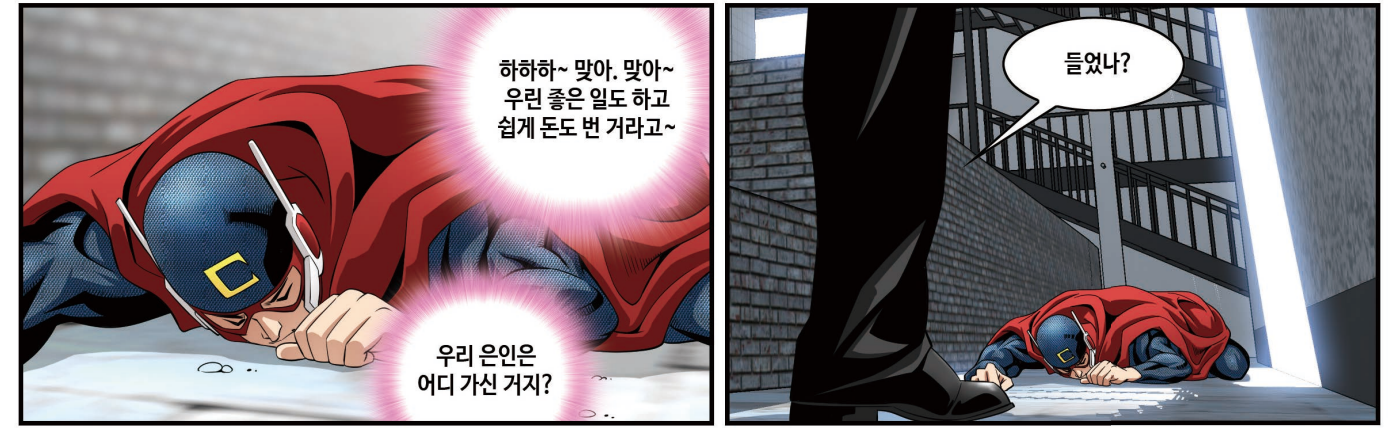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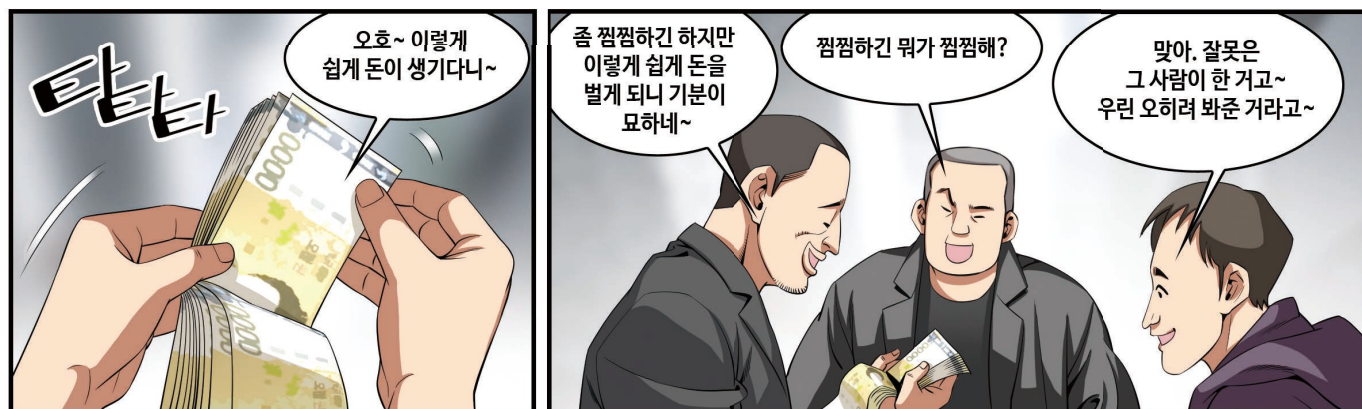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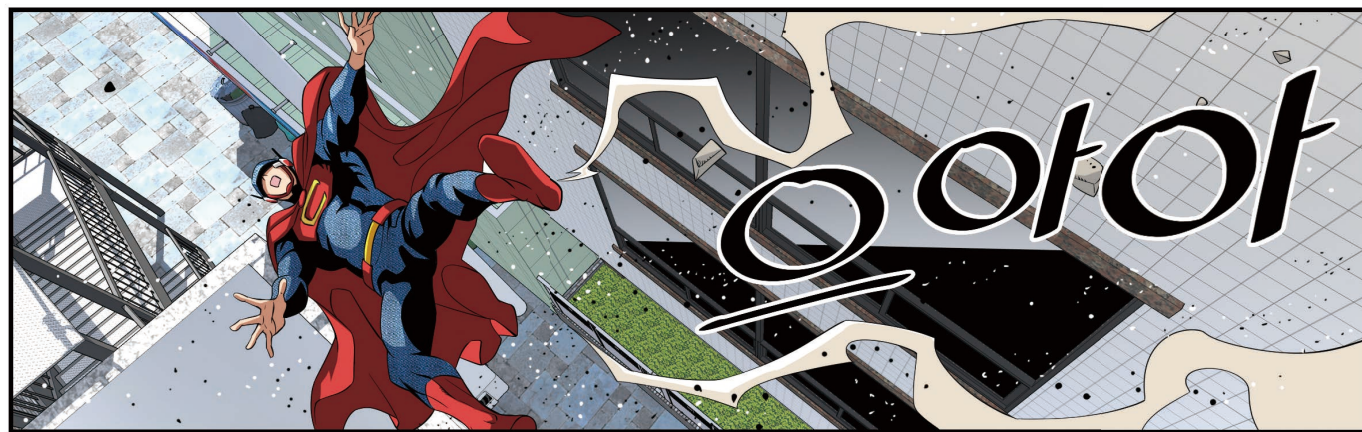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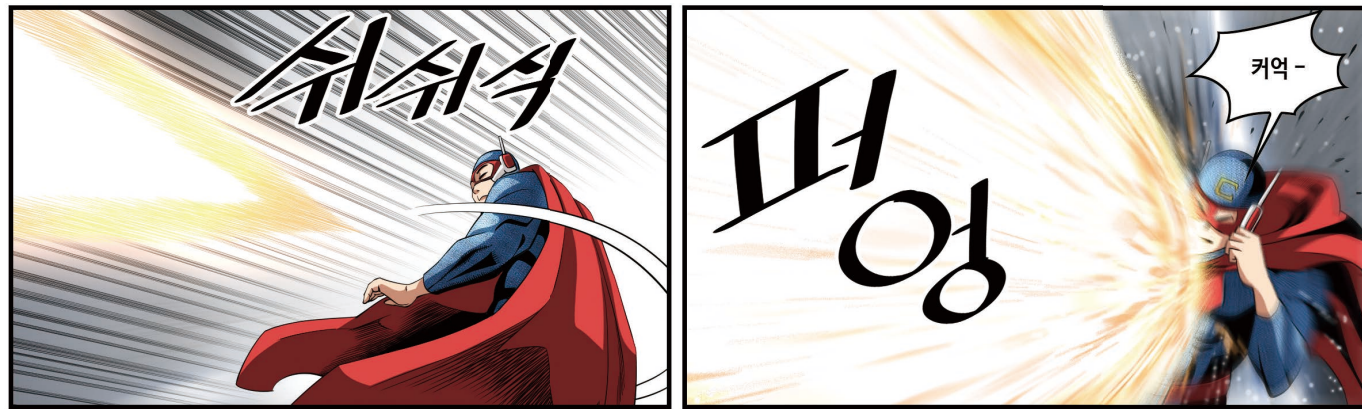
함평 나비마을 서울캠핑장은 가족공예, 밀납양초 만들기, 편백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공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은 치악산과 주천강을 배경 삼은 만큼 탁 트인 기분을 선사하는 캠핑장이다. 모닥불 체험장이 있어 가족이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좋은 곳이다.

이처럼 비용도 저렴하고 자연과도 가까운 캠핑장은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가족 힐링의 최적지다. 올여름, 캠핑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이들이라면, 특별한 캠핑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판지맨의 강력한 힘으로
위험에 빠진 교정맨





감옥 안에서 자유로워지다 마음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노래’

미국의 유명 가수 존 레전드는 ‘Free America’라는 캠페인을 통해, 복역 후 삶을 개척하려는 수용자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다. 교도소, 강제 수용소를 돌아다니며 재활과 치유를 장려하는 것이다. 자메이카 음악가인 밥 말리의 ‘구원의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백하게 선사하는 그는, 이 명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모두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수용자들을 도와준다면 그들 역시 치유할 수 있다”고 말이다.



John Legend
TED 강연 영상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유와 나라 미국에서 특별한 여정길에 오른 존 레전드. 그는 검찰관과 국회의원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용자들과 소통했다. 이민자 수용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구원과 변화라는 가치가 교도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복역이 끝난 후 나은 삶을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 말을 전한다. ‘재활과 사랑, 그리고 연민을 핵심 가치로 여겨라.’

마음으로 자유를 얻은 남자

존 레전드는 제임스 캐비트이라는 수용자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제임스는 샌 켈빈 주립 교도소에서 12년간 복역 끝에 곧 석방을 하게 되는 수용자다. 또한 제임스는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남편이자, 아들이며, 시인이다.

존 레전드는 제임스에 대해 ‘한 사람을 실패했다고 정의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설명한다. 존 레전드에 따르면 제임스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죄값을 치르고 있으며 생산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한 ‘영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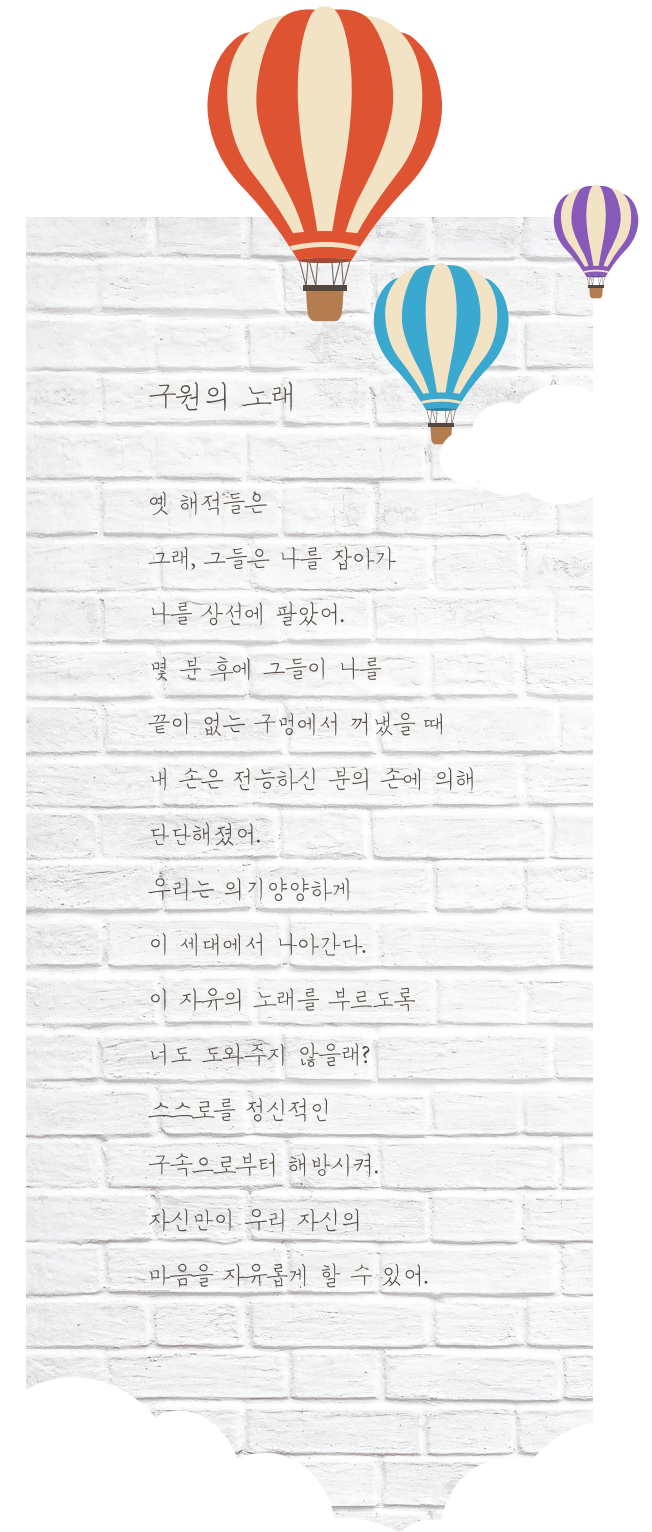
“나는 수용자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감옥이란 공간에서 나는 냉혹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꼭 자유롭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만든 감옥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장소가 아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TED ‘Redemption Song’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John Legend’를 입력한다 ➔ 동영상 중 John Legend: ‘Redemption Song’을 재생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나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

나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많아서, 나를 둘러싼 시선이 많아서, 나를 짓누르는 삶의 여러 고민으로 정작 내 자신을 놓쳐버리기 쉬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종종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미아처럼 황무지 벌판에서 물음표를 새기는 것이다. 그런 삶에 놓인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성을 일깨워주는 책들을 소개한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지음 / 마음의숲



굿 라이프
최인철 지음 / 21세기북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완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 저자는 책을 펴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는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긴다. 그것이 우리가 이토록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훑어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심리학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삶에 관해 수행해온 ‘자기 연구’를 소개하는 책이다. 눈 여겨 봐야 하는 대목은, 소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설파하는 부분이다.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평범한 의미들 또한 행복의 한 축이고, 나이가 들수록 쾌락, 즐거움보다는 가치와 의미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삶의 선물임을 말한다. 이외에도 ‘좋은 삶’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을 생생한 언어로 우리 눈앞에 펼쳐놓은 이 책은, 궁극적으로 나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자신에게 ‘좋은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해준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 스케줄과 속도가 있다고 하지만 나이에 걸맞은 인생 매뉴얼이라는 게 정해진 것은 아닐까.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득달같이 질문 세레가 쏟아지는 세상이다. 인생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인생 매뉴얼에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쓴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 때문에 자신만의 가치나 방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책은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한’ 저자의 실험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고민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대전교도소에서는 소장님이 매월 월례회 때마다 각 현장 팀별로 우수 근무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선정된 직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 에피소드는 물론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과 철학을 발표하며 많은 직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발표 사례가 있었다.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례를 전하고자 한다.

동료의 여정으로 나를 반추하다

저는 대전교도소 외국인관리팀에서 10개월째 운동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 교사입니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정공무원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손은 엄하나 나의 마음은 친절하다.” 입출소실 앞에 걸려있는 글귀인데, 가장 이상적인 교정공무원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에게 너무 엄하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친절하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해야 하는데, 우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의 법령과 질서를 잘 준수하도록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진행하는 것입니다. 잘 순응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고충을 처리하고, 개별처우를 해주며 적절하게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계속 친절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엄하게 대하면 일관성 없는 근무 자세에 대해 수용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용동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용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수용자들을 만납니다.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 근무자는 수용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의 틀 안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일관적으로 수용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용자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근무자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됩니다.

세 번째,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의할 점은?

교정사고를 막는 것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주의를 기울이면 그만큼 교정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틈날 때마다 수용 거실을 더 자주 살펴보고 수용자의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수용 거실 안에서 수용자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이상 세세한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수용동 현장의 책임 근무자로서 최대한 거실 안의 상황이나 수용자에 대해 잘 파악하려면 ‘자주 둘러보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직업에 대해 보람을 갖는 원천이 있다면?

저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요즘 들어 느낍니다. 제가 처음 교정직에 입직했을 때만 해도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교위직의 교정시설 입소, 교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먼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실제 제 친한 지인에게 제 경험담을 전하며 교정공무원을 평생직업으로 추천해 주었더니 그 지인은 열심히 공부하여 교정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교정공무원인 우리들이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낄 때 교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좋게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교사의 발표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의 이 소중한 직장을 가족과 이웃에게 애정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과 불평을 먼저 늘어놓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지 말이다. 한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진 애정을 확인함으로써, 나는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근무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가 체격도 왜소하고 외적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기지 못하다 보니, 교정공무원이 되고 처음 수용동에서 근무하게 됐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외적인 요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우 평소 형집행 법령을 틈만 나면 읽고 중요한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수용자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 외웠던 내용을 되새김질하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수용자를 처우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고, 전보다 덜 힘들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용동에서 근무할 때 저는 늘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절차나 적용에 대해 정확히 모를 경우, 고충처리반, 수용기록계, 조사실, 보안행정팀 선배님들이 달려와 도와주는 덕분입니다. 또 외국어를 잘 모르면 외국인을 담당하는 선배님들이 앞장서 해결해 주죠, 직접 제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TRS로 호출하면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든든한 CRPT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수용자한테는 욕을 먹더라도 적어도 동료들에게 욕먹지는 말자. 그리고 창피한 행동을 하지 말자.” 동료들끼리 이렇게 함께 근무하는 것도 서로의 인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정본부, 우리은행과 금고업무 협약 체결 수용자 처우 위해 금융 서비스 향상하다



교정본부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금융사를 통한 사회 공헌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용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은행사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던 교정본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게 됐다.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자.

금융 처우를 개선해낸 교정본부의 노력

지난 6월 20일, 교정본부와 대전지방법교정청은 우리은행과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강주 대전지방법교정청 청장과 허정진 우리은행 기관그룹부행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교정본부는 수용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은행’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13개 은행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설명을 가졌으며 이후 우리은행을 포함, 4개사가 참여한 사전 입찰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각 은행사는 ‘은행이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교정·교화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영치금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공헌 유형’에 대해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방법교정청 계약전담팀과 서울지방법교정청 전산관리과 담당자들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치열한 협의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한 은행사의 사회적 공헌 서비스와 민원인의 금융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냈다.



우리은행, 든든한 지원군이 되다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은행’으로 최종 선정된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5년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며, ‘영치금 온라인 뱅킹시스템’을 통해 5만 5,000여 명 수용자의 영치금을 관리한다.

또한, 예탁금리를 인상하고 주요 교정시설에 자동화기기를 추가 설치해 수용자 명의의 입금전용 계좌도 발급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을 방문한 면회자가 영치금을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수용자 기술 경진대회’와 ‘수용자 우수 생상품 판매’ 등 교정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후원할 계획이다.



공개입찰 및 신규약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유지 보수	전문업체 별도 3자 계약	금고은행 책임관리	안정성 강화
백업 서버	없음	추가	안정성 강화
예탁금 금리	분기별 평잔액의 0.1% (300만 원 : 연간 12,000원)	분기별 평잔액의 0.11% (300만 원 : 연간 13,200원)	+ 0.01%
ATM기	13개소	15개소	+ 2개소
금액 지원	없음	■수용자, 민원인 수기 공모 및 시상금 영치금 지원	영치금·품 관련 소재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없음	■교도작업 제품 구입 ■도서(베스트셀러) 기증 ■가족관계 회복 후원 ■교정의 날 기념 후원	영치금·품 관련 소재
기타	없음	■영업점(880개) 교정관련 간행물 비치 ■금융상담 지원 ■원격지 출장서비스 지원	

교정시설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I. 개요

1. 출장 목적

NSW(New South Wales)주 소속의 Longbay hospital(교정병원), Forensic hospital, 36개의 교정시설, 경찰서 유치장, 재판 법정의 환자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총괄기관인 보건복지부 소속의 Justice Health & Forensic Mental Health Network(JH& FMHN)를 방문하여 실무자 면담을 통해 수용자 의료처우와 의료인력 현황 및 관련 행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처우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018년 현재 NSW주 전체수용자 15,000명 중 Longbay hospital에 약 1,500명이 수용되어 있다.)

특히 1909년도에 설립된 Longbay hospital 방문을 통해 NSW(New South Wales)주 내 노인·정신질환 수용자의 최신 의료처우 및 관련행정과 의료인력 현황 및 활용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활용 방안과 24시간 응급의료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정신보건분류평가원(MHSU)을 방문하여 교정시설 입소 대상자 중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련 처우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신질환 수용자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출장기간 및 기관, 인원

- 출장기간 : 2018. 04. 28. ~ 05. 04.
- 출장기관 및 면담자 : Justice Health & Forensic Mental Health Network, Longbay Hospital(입원), Longbay Hospital(외래), 메트로폴리탄 정신보건분류평가원
- 출장인원 : 총 8명(부이사관 우희경, 교정관 박대철, 교정관 김석홍, 간호주사 임성식, 간호주사보 이준호, 교사 이동철, 교도 신명철, 교도 정인혁)

II. Justice Health & Forensic Mental Health Network (JH & FM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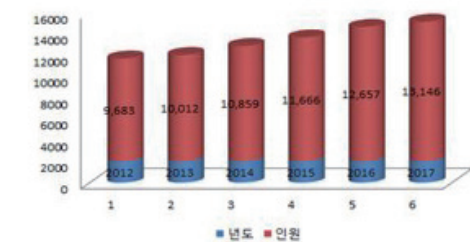
1. 시설 특징

NSW주 소속의 Longbay hospital(교정병원), Forensic hospital, 36개의 교정시설, 경찰서 유치장, 재판 법정의 환자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총괄 기관으로써 법무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수용자뿐만 아니라 입소 전후에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의료처우를 제공한다.

현재 NSW주 교정시설에 총 15,000명의 수용자가 있으며 수용인원이 최근 5년간 약 25%가량 증가하여 항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JH & FMHN」입구



NSW주의 수용인원(2012년~2017년)

2. 기관 현황

지역적으로 고립된 교정시설 특성상 의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채용이 어려운 편으로 모든 교정시설에 상주 의사(full-time GP)가 근무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시간제근무(part-time GP) 방식으로 외부병원 의사가 채용되어 있다.

현재 주 소속 상주 의사(full-time GP)는 총 15명, 시간제근무(part-time GP) 의사는 총 136명이 근무하며, 시간제 의사는 연락 시 즉시 출근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기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의료적 권한이 많은 Nurse practitioner(전문 간호사)¹⁾가 채용된 경우 직접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고 의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필요시 처방약 투약은 국내에서와 같이 RN(일반간호사)도 가능하다고 한다. 수용자 100명에 대한 의료인 비율은 의사(100:1.25), 간호사 (100 : 2.75)로써 국내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의료 처우의 특징

지역적인 특성상 원격화상 의료시스템을 통하여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하여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메디케어²⁾에 등록된 대상자의 과거 병력, 투약내역 등을 교정 의료 처우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전 앓고 있던 질병 및 복용약을 전산으로 바로 확인하여 즉각적인 의료처우가 가능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의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수용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모든 교정시설 내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수용자 투약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부작용과 투약률 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설명해 주었고 호주에서도 수용자 투약률을 낮추기 위하여 시설 내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회의를

1) 간호의 특정영역에 있어서 지식, 기술에 정통하고 실천능력 및 지도능력이 높은 간호사를 말함. 간호직능단체, 대학, 특정 병원 등에서의 연수, 인정코스 및 시험합격 등의 요건을 충족한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을 얻은 간호사

2) 메디케어: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대하여 무료로 저비용으로 의료·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의 건강보험제도와 비슷한 공공의료보장제도

열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여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상담하고 진료하여 직접 진단을 하고, 정신간호사·심리치료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자체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NSW주에 수용된 환자(성인)		
구금환자의 25% (원주민)	트라우마 경험자 65%	자살시도 18%
비만을 46%		5대 만성질환자 (알러지, 천식, 요통, C형간염, 고혈압)
물질남용환자의 69% 알콜 의존		거의 2/3가 일상생활에서 정신질환을 진단 받음
간호가 필요한 사람 21%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까다롭고 철저히 관리된다. 처방내역 및 투약현황이 의약청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서 관리되고 시스템의 허가가 있어야 처방이 가능하며 투약자들은 출소 후에도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지속된다.

III. Longbay Hospital(입원)

1. 시설 특징

Longbay hospital은 1909년도에 설립되어 2008년도에 리모델링된 NSW주의 유일한 교정병원으로 85개의 침대를 갖추어 노인 및 재활병동(15개), 격리병동(30개), 정신질환병동(40개)의 3개 병동으로 구분된다. 현재 위치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1998년부터 진행되어 2006년 예산투입이 주정부에 의하여 승인된다. 시설 참관을 위해서 엄격한 검신 절차를 거쳐야 했고, 특히 사진촬영은 허용되지 않아 카메라는 차에 두고 들어가야 했다. 호주의 경우 방문하는 모든 교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보안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홍채 인식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기계에 LG라는 국내 기업 마크가 붙어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시찰단은 여권 확인 후 통과)

2. 기관 현황

노인 및 재활병동으로 바로 입소하는 경우는 경찰, 검찰에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견을 내어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7일에 한 번 롱베이병원에 자문을 구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 이송이 이루어진다. 노인 병동의 시설적인 조건으로는 미끄럼 방지 바닥, 핸들바, 샤워체어, 화장실 내 간호사 호출 벨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는 간호사 1명과 교도관 2명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격리병동에는 감염병 환자, 관심대상수용자 및 일반 환자도 입원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음압실, 투석이 가동된다. 정신질환 병동은 2개의 병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급성질환자 병동, 만성질환자 병동) 간호사는 2교대로 근무하며 12시간 근무

6명, 8시간 근무 2명이 투입된다. CCTV는 거실에 5개가 있으며 정신과 의사 3명, 간호사 38명이 소속되어 있다. 급성병동은 10개의 집중치료병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자살·자해 시도 시 급성병동으로 이동), 만성병동은 급성 이후 처방약을 복용하며 치료 중인 수용자를 위해 30개의 병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의료 처우의 특징

신체질환, 정신질환,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 및 호스피스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사가 상주하고, 수술적 처치는 10분 거리의 외부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약물치료와 환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투석실은 2명씩 6일간 투석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7명의 환자가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일반의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주하고 그 이후에는 폴 대기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의들은 파트타임 의사로 질환별 초빙진료 형태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외부병원 이송진료보다는 파트타임 전문의들과의 협진이나 초빙진료로 시설 내에서 치료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급성병동은 오전 2시 30분에 거실폐방을 하고 아급성 병동은 오전 2시 30분에 거실폐방 후 오전 4시 30분부터 2시간 개방이 가능한 처우를 제공하여 처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하루 평균 6시간의 야외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IV. Longbay Hospital(외래)

1. 시설 특징

Longbay hospital(외래)의 개원은 1998년에 이루어졌고, 2006년 7월 리모델링되었다. 새로운 Longbay hospital(외래)는 NSW, 법무부 및 법의학 정신 건강 네트워크와 PPP솔루션 사이의 공동 공공 기관 협력 프로젝트이며 이 병원은 롱베이 콤플렉스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Longbay hospital(외래)은 의료와 정신건강 치료를 모두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향상된 요양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 기관 현황

의료인 80명, GP 2명, 클리닉 5개(물리치료, 치과, 안과, 방사선, 일반진료과)로 운영된다. 교정환경의 평균 체류 기간은 8일 미만인 27%에 불과하다. 10% 미만인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어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수용자는 일반적인 방치, 약물 남용 그리고 정신 질환으로 인해 나쁜 건강 상태로 분류된다. 두 달에 한 번 의료인과 수용자가 만나 건강 상담, 관계형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

3. 의료 처우의 특징

하루 진료 인원은 평균 80명이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GP(일반의) 1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RN 1명이 4개의 구역 1,500명의 환자를 관리한다. 그 외 물리치료사 2명, 방사선사 1명 근무(초음파는 1주/1회, X-ray 1주/3회)하고 있다.(방사선사가 X-ray 촬영 사진을 직접 판독한다.) MRI, CT 촬영은 외부병원에서 하고 있다. NSW주 전체 의료시설 중 유일하게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 주 전체 수용자의 초음파 검사를 맡고 있으며 이 모든 시스템은 DR시스템을 통해 연계되고 있다. 약 제조는 약사가 하며 제조된 약을 간호사가 분류하여 투약한다.

V. 메트로폴리탄 정신분류평가

1. 시설 특징

Silverwater Correctional Complex에는 Metropolitan Remand & Reception Centre(MRRC), Silverwater Womens Correctional Centre(여성), DAWN DE LOAS Correctional Centre(남성)의 3개 교정시설이 있으며 MRRC내에 MHSU(정신보건분류평가원)이 있다. MRRC는 1997년 7월 개청된 교정시설로, 비교적 중범죄를 저지른 935명을 수용하고 있다.

수용자는 강도, 테러범 등 중범죄자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자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자 보호 차원에서 혼거가 부적당한 수용자,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수용자가 약 36%를 구성하고 있다. 정신보건분류평가원이란 교정시설 입소대상자 중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교정시설로 입소하기 전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곳으로 현재 NSW주에 36개의 센터가 있고 이곳 MHSU에는 1200명이 수용되고 있다.

이곳의 첫 관문인 입소실에는 교도관 1명과 간호사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호송차에서 수용자가 내리면 곧바로 이곳으로 들어와 신체검사, 물품검사 후 병력파악 및 기본적인 생체활력징후 및 정신 상태를 확인한다. 정신과 의사, 간호사, 교도관이 한 팀을 이루어 수시로 면담을 하며 이들의 정신 상태를 평가한다. 테러범, 다른 사람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자살이 우려되는 경우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여 24시간 감시하는 점은 우리의 실정과 유사하다.

2. 기관 현황

정신질환자가 의료진의 상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정신전담 간호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병동 복도에 직통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교도관과 의료진들은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적인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 각자의 업무에 강한 자부심을 보이며 의료진과 환자가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상담, 검사, 치료과정에서 교도관은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호한다.

재판참고자료 관리부서가 존재한다. 정신병력 자료를 재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준비하고 관리를 전담하는 역할을 한다.

치료감호소 기능을 하는 high dependency unit가 존재하고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수용자들이 연 500명가량 이곳에 수용돼 출소한다. 36일 과정으로 감정기간 정신과의사, 정신간호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3. 의료 처우 특징

시설의 규모가 커서 의료과라고 볼 수 있는 의료센터는 메인클리닉과 서브클리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메인



MRRC 입구

3) 정신질환자는 사리분별이 어려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질환(조현병,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를 의미함

클리닉 내에는 의료수용동이 존재한다. 입소자 중 건강상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이곳에 수용된다. 서브클리닉보다 더 많은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치과진료는 메인클리닉에서만 할 수 있다.

치료가 쉽지 않고 오랜 보살핌이 필요한 정신질환의 특성상 수용자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족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 가족들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자의 가족들에게도 정신전담 간호사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수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고 때때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정신질환자 처우 기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며 좀 더 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VI. 시사점 및 특이 사항

1. 의료 인력의 문제

호주도 수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시간제 의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이 한국의 교정 의료 인력채용의 문제를 보는 듯하다.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한 의료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와 유사점이 있다. 앞으로 간호직 교도관에게 진료 권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2. 직원 안전 문제

국내 호송시스템과 호주의 호송시스템은 직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적인 마인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 호송차 내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일반 버스 구조에 창문에 철격자를 설치하여 직원과 수용자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냉동차처럼 생긴 구조에 직원은 운전석에만 착석한다.(수용자와 직원을 분리하여 호송차 뒤를 따라 계호를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호송의 현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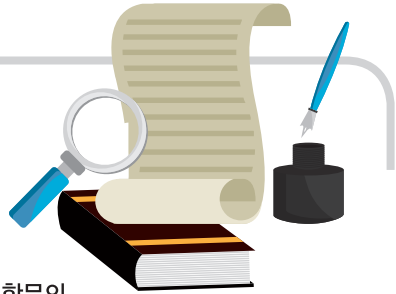
수용자는 별개로 분리된 한 라인에 2~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5~6개 라인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서 에어컨 시설이 있다고 하나 밀폐되어 있고 외부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답답했다. 수용자와 면담 시 사람에게 위해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는 거실에서 출실할 때부터 수갑을 채워서 이동했다.

3. 관계 형성 및 기타

여성 교도관 역시 교정시설 내에서 훌륭하게 전문가, 동료로서 신뢰를 받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이채로웠다. 우리의 경우 여성 교도관이 남자 수용동으로 출입할 경우 남자 교도관이 계호를 해야 하기에 인력이 더 소모된다는 불평이 있다.

수용자와 치료진과의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관계 형성을 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 치료의 상승효과를 가져 온다. 질서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식이다.

혈액투석기 3대를 보유하여 기관 내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투석을 해결한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국내에도 각 기관별 투석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정학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1. 형집행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 ② 신입자거실 수용과 석방예정자거실 수용에 관련된 규정은 재량이 아닌 필요적 규정이다.
- ③ 법무부장관은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8조).
- ② 신입자거실 수용은 필요적 규정이고, 석방예정자거실 수용은 임의적 규정이다(동법시행령 제18조, 제141조).
- ④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즉 전부가 아닌 일부이다(동법 제7조).

정답 ③

2. 다음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③ 수용자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 번호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 ④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형집행법 제16조 제2항

-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장관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소장의 재량사항이다(형집행법 제18조 제1항).
- ③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번호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④ 간이입소절차 대상은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와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이다(동법 제16조의 2).

정답 ②

3. 다음 주어진 지문의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문구가 순서대로 맞게 배열된 것은?

-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죄질·()·범죄전력·()·() 및 수용 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15조).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건강상태·기술·()·취미·()·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65조 제2항).

	㉠	㉡	㉢	㉣
①	작업능력	성별	경력	형기
②	성별	성격	나이	경력
③	학력	범수	나이	경력
④	형기	성격	나이	경력

거실지정시 참작사유와 작업부과시 참작사유로 동일한 것은 형기, 성격, 나이, 경력이다. 작업능력과 성별 및 학력은 거실지정시 참작사유와 작업부과시 참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④

4. 형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용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 ① 소년교도소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수용하며, 소년이 형집행 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② 구치소와 교도소 내 미결수용실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미결수용자만을 수용한다.
-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용자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④ 교도관은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6조

- ① 소년이 형집행 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년법」의 규정이다(동법 제63조).
- ② 구치소나 교도소 내 미결수용실에는 소년 및 성인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용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 제4항).

정답 ④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7

July 2018 Vol. 506

법무부 차관, 청주 여자 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지난 6월 18일 청주 여자 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여성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재난 안전 실태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중앙통제실, 작업장 등을 참관하며 직원과 수용자를 격려하였다.

교정본부장, 영월·강릉 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지난 6월 14일 영월 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였으며 15일에는 강릉 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통해 수용자 교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으며 직원 간담회에서는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화방송자문단 제20차 정기회의 개최

지난 6월 7일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교화방송자문단 제20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태진아 위원장 등 자문위원 6명과 김학성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 6명이 참석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교화방송 편성 평가 및 하반기 편성 방향 제안 등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도 상반기 하트세이버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지난 6월 12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하트세이버 선정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 의료과장 등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1명이 참석하여 수원구치소 교도 안태진 등 2명을 대상으로 하트세이버 선정 적격 여부를 심의하였다.

※ 하트세이버 : 심장정지 등으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 소생술 또는 자동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

「교정실무」 교재 발간 및 배부

지난 6월 15일 교정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정실무」 교재가 발간 및 배부되었다. 「교정실무」는 각 업무분야별 법령, 훈령·예규,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등을 망라한 실무 종합지침서로서 전국 교정기관 업무의 통일성 확보를 통해 수용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실현하고 교정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21년부터는 6급 이하 승진시험 과목 중 교정학 출제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정기 총회 개최

지난 6월 21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정기 총회가 강남구 소재 삼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 총회에는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운영위원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사업결산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 등 주요 현안을 의결·심의했다. 한편 현재 교정위원은 교화 1,815명, 종교 1,907명, 교육 330명, 의료 92명, 취업 647명 등 총 4,791명이다.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포상식

지난 6월 21일 법무부 7층 기획조정실장실에서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포상식이 진행되었다. 교정기획과와 부산교도소가 각각 '교정민원 콜센터 구축'과 '희망이음 사업을 통한 교도작업 개선' 사례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수상부서와 기관에는 법무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드라마·시나리오 작가 남부교도소 팸투어 실시

지난 6월 18일 CJ E&M 드라마 및 시나리오 작가 30명을 대상으로 남부교도소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작가들은 교도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함께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였으며 참관 후 교정 업무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매체에 등장하는 교정정책이 바르게 표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광철

2018년 송무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6월 25일 소속기관의 송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동향에 발맞춘 소송수행 방안'에 대한 논의와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온라인 행정심판)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서울구치소 / 교도 변무관

호국 보훈의 달 자체 추념 행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6월 5일 소 내에 있는 교화공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 및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 자체 추념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호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모락고등학교 교정 장학금 전달

안양교도소는 6월 5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하여 소 인근에 위치한 모락고등학교에 교정 장학금 5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실시

수원구치소는 5월 25일 구내 연무관에서 수용자 27명과 그 가족 80명을 초청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모범 수용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여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용자들은 가족과 한 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 간의 애뜻한 정을 확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였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이태근 화백 개인전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6월 18일에서 29일까지 2주간 수용자의 심성 순화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한국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한국화 화단의 중심인 이태근 화백의 한국화 40점이 전시되었다. 한국화는 한국 자연경관의 아름다운 산천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인천구치소 / 교사 강호철

제20회 법무부장관기 테니스 대회 개최

인천구치소는 6월 2일 서울지방교정청의 주최 하에 정부과천청사 테니스장에서 제20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6개 기관이 4개 조로 편성되었다. 우승은 서울구치소, 준우승은 인천구치소가 차지하였다. 청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는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유진규

오남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6월 14일 '오남중학교 진로체험의 날'을 맞이하여 오남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 및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시설 참관에 앞서 교정공무원·교정 시설의 전반적인 내용, 교도관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등을 설명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수용자 기능사시험 98.3% 합격률 달성

3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된 2018년 국가 기술자격검정 기능사 및 제33회 점역교정 실기시험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245명이 응시, 이중 241명이 합격했다. 이는 98.3%의 높은 합격률로, 수용자들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의로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의정부경찰서와 친선 체육대회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5월 24일 의정부경찰서와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체육대회는 탁구, 축구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 후 간담회를 통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제18회 기능사 실기시험 전원합격

5월 28일과 29일 실시된 제18회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여주교도소 수용자 37명이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6개월에서 1년간 과목별 전문이론 교육 및 실습훈련 교육을 받은 수용자들은 지게차 운전(17명), 양식조리(20명) 부분에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직원 화합 족구대회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6월 4일부터 한 달간 청사 옥상 다목적 체육시설에서 직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직원 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간부팀과 사무부서 4개 팀, 보안부서 6개 팀 등 총 11개 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각축전을 벌였다.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구

강원대학교 학생 참관 실시

춘천교도소는 6월 15일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춘천교도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교정행정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취사장, 수용동,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둘러보았다.



서울동부구치소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수용자를 위한 사랑의 짜장면 봉사 실시

원주교도소는 5월 29일 전 수용자에게 점심 특식으로 짜장면을 제공하는 '사랑의 짜장면 봉사'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원주교구청 안경진 신부의 후원과 중화요리 전문점 이화루 대표 이호학 부부의 재능기부로 마련되었다.

강릉교도소 / 교감 김이수

해군 1함대 헌병대대 참관 실시

강릉교도소는 5월 30일 해군 1함대 헌병대대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에 참여한 헌병대대원들은 첨단 경비시스템 및 현대화된 교정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체계적인 수용관리 및 교화시스템에 감명을 받았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상수

교정·공단 권역별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5월 30일 수용자 취·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교정기관과 공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교정·공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우수 직원 표창 수여와 '출소에정자 취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방안에 대한 토의로 구성되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사전상담위원 참관 실시

대구교도소는 6월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박태규 부장과 사전상담위원회 1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관계기관과 지역민에게 최근 변화된 교정행정을 홍보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정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재훈

유도대회 행사 개최

부산구치소는 5월 27일 부산구치소 연무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산구치소 유도대회'를 개최하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6월 14일 영월교도소를 방문하여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수용자 자치 처우의 내실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갑질문화 근절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6월 14일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문화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직장동료에게 갑질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며 사전에 실시한 갑질 문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었다. 이번 대회는 2017년까지 매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어린이 유도대회'를 개최해온 것을 대학생 및 일반인 등도 참가하도록 해 '지역주민 유도대회'로 확대한 것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규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참관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5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관심을 유도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청렴의식과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해빈

전통 성년회 실시

창원교도소에서는 5월 21일 성년을 맞이한 수용자 4명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창원교도소 사회복지과 불교관, 마산대학교 인성교육관 배석순 교수의 진행 및 후원으로 실시되었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2018년 제1회 소망 가족사랑 캠프 실시

소망교도소는 6월 9일 2018년 제1회 소망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수용자 21명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크레이션, 가족 편지 쓰기,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NEWS

NEWS

부산교도소 / 교사 강민승

찾아가는 동호회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5월 21일 '찾아가는 동호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동호회'는 동호회별 행사에 기관장·부서장이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이벤트다. 이번에는 축구 동호회 행사가 펼쳐져 기관장·부서장이 직원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시간이 되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자연과 정 나누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포항교도소는 5월 28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자연과 정 나누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직접 생명체를 키우면서 매일 커다란 감동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며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보훈가족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진주교도소는 6월 1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사랑나눔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저소득자 등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대구지방교정청

1가정(6·25전쟁 무공수훈자 유족 조○○)을 선정해 직원들이 마련한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하였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대구구치소는 6월 12일 재범방지과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2018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일광산업, ㈜희성산업, ㈜대창창조건설, ㈜제이수산 등 지역 유망기업 4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 참여하였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봄철 농촌 봉사활동 및 청렴 캠페인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30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를 찾아가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및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농번기를 맞아 농가를 방문한 직원 10명은 과수원에서 사과 적과 작업을 진행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도 양승명

공직자 나라사랑교육 실시

안동교도소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8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전통시장 방문의 날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5월 28일 '전통시장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찾아 식사 및 먹거리,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사람들과 담화와 격려를 나누었다.



포항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연

직원가족 초청 교정시설 참관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5월 25일 교정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정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 가족 70여 명을 초청하여 참관을 실시하였다. 직원 가족들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거실, 직업훈련장, 교육장 등 시설을 참관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유성

진성중학교 장학금 수여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6월 1일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진성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체육특기생 4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성중학교에 약 1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현충탑 참배 실시

울산구치소에서는 간부 22명들이 6월 5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울산대공원 내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순직 교도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였다. 정창현 소장은 '헌신적인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뜻을 길이 추모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교정부조리 예방 간담회 개최

경주교도소는 6월 19일 교정부조리 예방 간담회 및 청렴 韓 세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직원상호간 공직생활 애로점을 청취하고 조직문화 개선방안,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점 등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했으며 청렴도 향상 방안,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김천소년교도소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외부강사 초빙 청렴 및 부패 방지 교육 실시

통영구치소는 5월 24일 통영 RCE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준 위원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부정청탁의 금지', '갑질 근절' 등을 주제로 한 청렴 및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정착시키고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현

제2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밀양구치소는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22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 밀양구치소 내 행사장에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수용자 가족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성실히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 안도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북한 이탈주민 강사 초청 안보강연 실시

상주교도소는 6월 5일 북한 이탈주민을 강사로 초청해 남북의 분단 상황과 북한정세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은 직원 및 수용자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고취하고, 건전한 국가관 및 투철한 안보관을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울산구치소

NEWS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형석

대전국립현충원 참배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6월 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현충원을 방문한 최강주 청장과 직원 일동은 목념과 헌화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넋을 기렸다. 또한 소방공무원 모역에 위치한 경비교도대 묘비를 찾아 추모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위 하봉문

대전 중구문화원과 함께하는 작품전시회 개최

대전교도소는 6월 8일 대전 중구문화원의 후원으로 '대전 중구문화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수채화 20점, 캘리그래피 20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9월 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청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

청주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 실시

청주교도소는 6월 4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청주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연은 수용자의 건전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7개 공연팀이 참여하여 난타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천안교도소 / 교사 이희성

해피코러스 수용자합창단 공연 개최

천안교도소는 5월 31일 수용자 합창단인 해피코러스 합창단의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위원과 수용자 가족 등이 초청됐다. 해피코러스 합창단과 팜페라 가수 타니아, 인터젤로, 가수 김세아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되었다.



대전지방교정청

NEWS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마음 치유 콘서트' 교화 공연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6월 4일 '2018 신나는 예술여행 - 마음 치유 콘서트' 교화 공연을 개최하였다. 수용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마음치유 콘서트에는 기타, 바이올린, 첼로, 타악기 연주 무대가 펼쳐졌다.

공주교도소 / 교위 김중옥

교감 승진 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6월 4일 6급 교감 승진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감 승진자들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업무 공적을 인정받아 6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13명의 승진자들은 이날 임용식에 모인 직원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현장학습 실시

충주구치소는 6월 8일 제천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성수 지도교수와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정공무원 홍보영상과 교정위원들 활동영상 시청, 구내 참관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홍성교도소는 6월 8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 접견실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지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존율을 높이고자 설치되었다. 민원실 근무자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직원 가족 초청 참관 행사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8일 소속 직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직원 가족 초청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직원 가족 33명이 초청되었다. 이들은 수용자 생활거실 및 취사장 등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며 가족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5월 28일 수용자 34명과 수용자 가족 64명, 교정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수용자와 가족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외부 강사 초청 공직자 안보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6월 12일 ㈜한국기업교육원 대표이사인 박동익을 강사로 초빙해 직원대상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북한의 변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주제로 하였다.



공주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최규철

2018년 상반기 교정·공단 권역별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6월 15일 '2018년 상반기 교정·공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소 예정자의 취업,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논의되었다. 흉남식 청장은 토론회를 마치고 수용자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교정·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광주교도소 / 교사 이병석

광주지방교정청장기 야구대회 우승

광주교도소는 6월 6일 제8회 법무부장관기 지역예선 및 광주지방교정청장기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하였다. 광주 첨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광주청 산하 9개 팀이 출전하여 하반기에 있을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야구대회 본선 진출을 목표로 경쟁하였다.

전주교도소 / 교사 김용희

제2회 출소에정 수용자 대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전주교도소는 6월 25일 출소에정 수용자의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위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신규 참여업체인 ㈜한림식품 등 10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순천교도소 / 교사 방상용

순천대학교 법학과 학생 참관 실시

순천교도소는 5월 28일 순천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순천대학교 법학과 학생 40명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도관 직업소개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용자 교육실, 생활공간, 중간처우 소망의 집 등 교정시설을 직접 체험하였다.

목포교도소 / 교사 이정균

취업지원협의회 위원 참관 실시

목포교도소는 6월 18일 '2018년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동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교학행정처장 등 유관기관 대표 7명이 참석, 취·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후 목공, 건축목공 작업장을 참관하였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작은 음악회 실시

군산교도소는 5월 30일 사무청사 옆 휴게공간에서 월간 교정지의 '교정은 행복을 싣고' 코너를 통해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1부는 군산교도소 내 색소폰 동호회인 워라벨의 공연, 2부는 홍성교도소 교위 김중률과 가수 4명의 공연으로 구성해 직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부서 대항 족구대회 실시

제주교도소는 6월 4일부터 15일까지 부서별 족구대회 시합을 개최하였다. 이번 족구대회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부서별 시합을 통해 부서원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버섯종균 기능사 전원 자격 취득

장흥교도소가 개설한 직업훈련 버섯종균 기능사 과정에 응시한 수용자 전원이 6월 15일 합격 통보를 받았다. 버섯종균 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론과 실기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가족 만남의 날 참가 가족 참관 실시

해남교도소는 6월 5일 가족만남의 날 참가 가족 중 참관 희망자 2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남교도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교정행정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관내 중학생 진로체험 및 참관 실시

정읍교도소는 5월 30일 관내에 위치해 있는 소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및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TV와 영화에서만 보던 교도관과 교도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어 깨끗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교정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정읍교도소

외부전문가 초빙 부패 예방교육 실시

교정공제회는 6월 21일 본회 10층 대회의실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 직원이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부패 통제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었다.



안양교도소
교사 박원직

수용자 고충 처리 및 나눔 활동 실천

질병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담당하면서 심신이 병약한 수용자를 위해 수시로 개별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교정 참여 인사들과 1:1 자매결연 등을 주선하여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불우수용자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교정장학금 제도를 활용하여,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교도소
교위 이삼만

교도작업 생산성 향상 및 청소년 보호활동 실천

철저한 검사,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교도작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교도작업의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하여 교도작업 예산을 절감하였다. 2015년에는 세입목표를 달성해 교도작업 생산왕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정화운동본부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천 레이디스앙상을 정기연주회 공연 관람

국군교도소는 6월 26일 '이천 레이디스앙상'을 창단 15주년 기념 스페셜 정기연주회'의 초청을 받아 이천아트홀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은 성악앙상블 단체인 '라루체 앙상블'과 JTBC 팬텀시즌1을 통해 진한 감동을 안겨준 테너 최용호를 중심으로 한 '솔레오레' 등의 무대로 구성돼 직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위 김철환

교정사고 예방 및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

자살우려자,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용관리로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소 내 건물, 주벽 등에 대한 도색작업을 자체 인력으로 시행하여 약 1,000여만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교정장학회에 가입하여 조손가정에 위문금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역의 편부모 학생, 효행 학생,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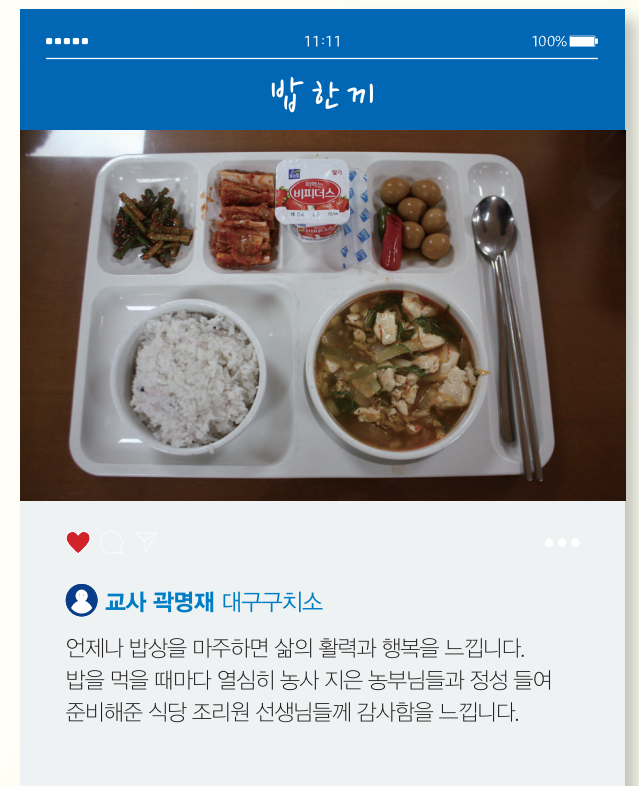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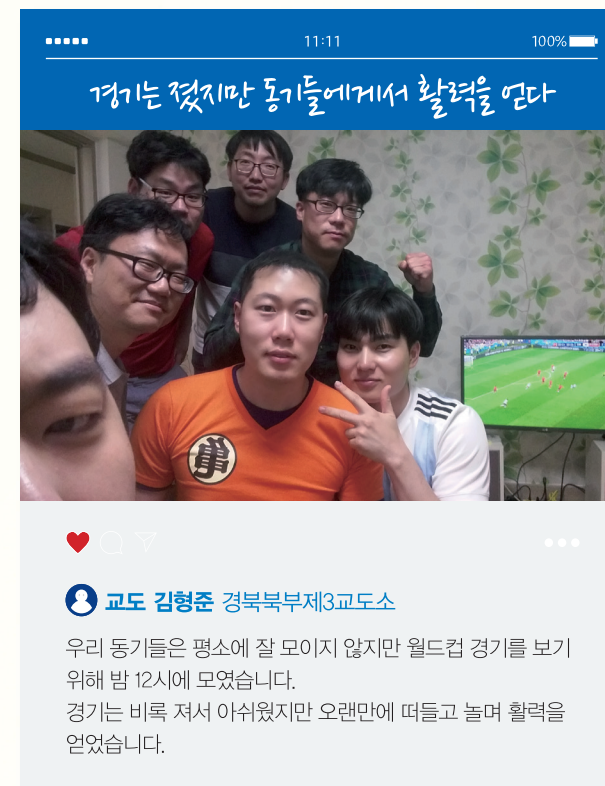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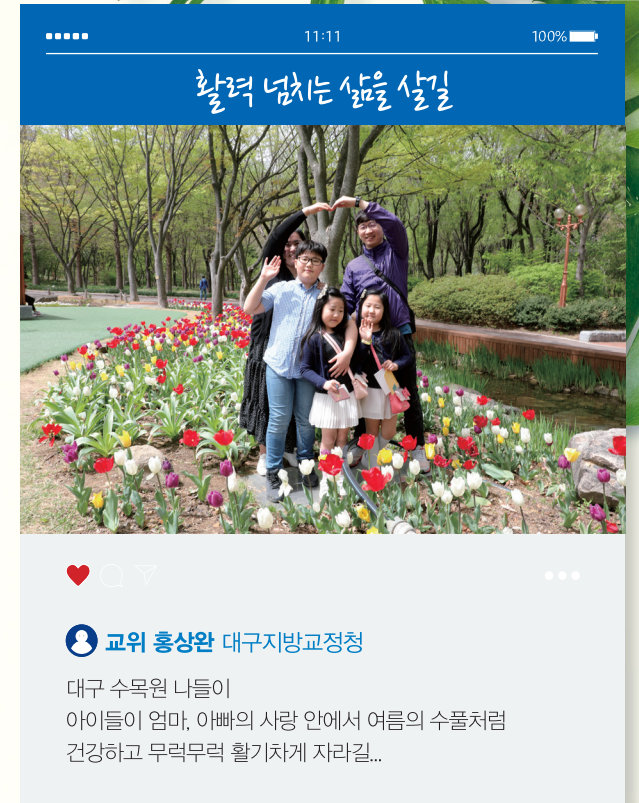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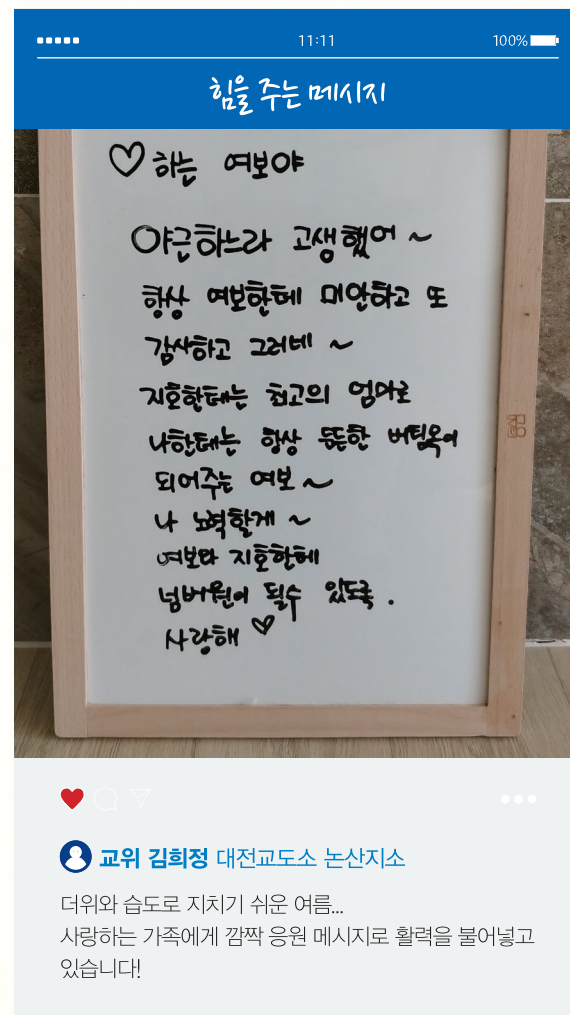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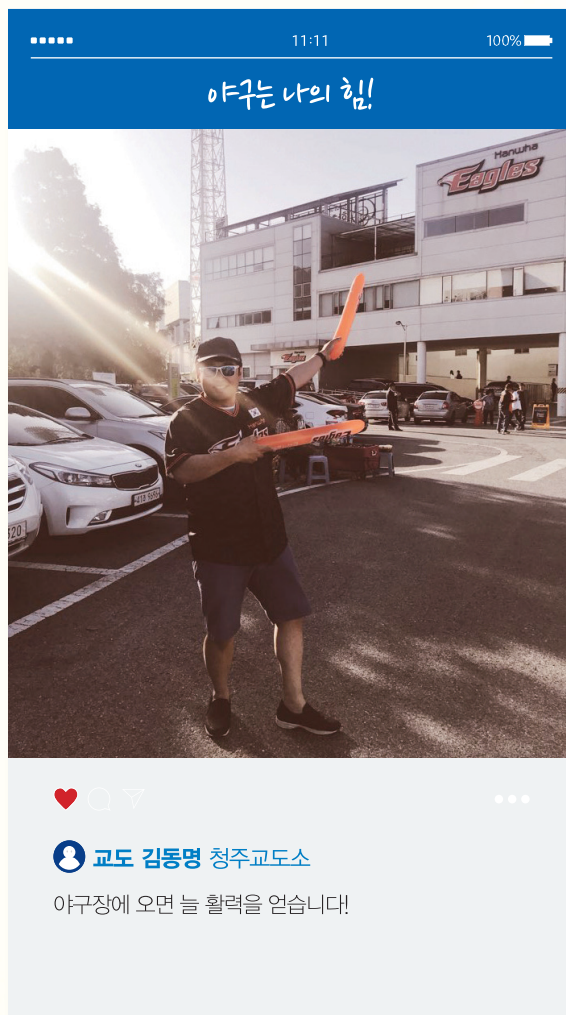
해남교도소
교사 서동현

원칙적 근무 실천 및 민원인 고충처리 철저

영치금·품 담당으로서, 2017년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전 수용자 개인별 영치품목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후 초과수량 물품을 영치 및 폐기하고 영치창고와 거실을 정리하여 소 내 환경미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성실하게 응대하고 있으며 마을 노인회관의 보일러를 교체 주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활력의 숨결을 불어넣는 당신을 들여다봅니다

월간 <교정> 7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건강한 활기로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장식하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따뜻한 시선이 머물고 포근한 감성이 묻어나는 특별한 활력의 모습들을 감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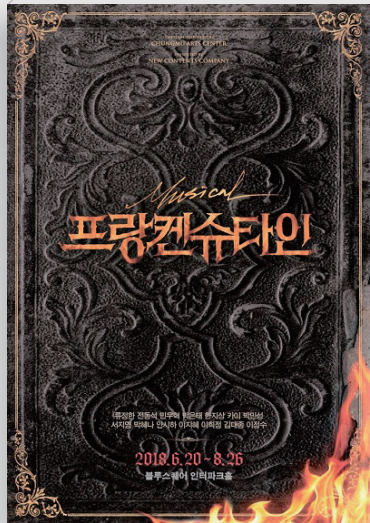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문화상품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의 테마 컬러는 'BLUE', 주제는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1MB 이상)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 소속, 직급, 이름, 휴대폰 번호 必



프랑켄슈타인

기간 2018년 6월 20일 ~ 2018년 8월 26일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구 삼성전자홀)

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생명의 본질을 재고케 하는 창작 뮤지컬이다. 2014년 초연했고 2016년 재연했다.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 '올해의 뮤지컬'과 '올해의 창작 뮤지컬'을 받았으며, 대극장 창작 뮤지컬로는 최초로 일본의 대형 제작사 '토호 프로덕션'과 라이선스를 체결, 일본에서도 공연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3연에선 초·재연에 함께한 한 지상·박은태를 비롯해 카이·박민성 등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다.



보이스리스 - 일곱 바다를 비추는 별

기간 2018년 6월 26일 ~ 2018년 8월 15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1층 전시실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 '보이스리스 - 일곱 바다를 비추는 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존재를 조명한다. 실천적 담론이자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정신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트식민주의는 이 전시에서 현실의 구체적 정황을 참조하는 유동적인 틀로 작동하는데, 따라서 이 전시는 포스트식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맥락에 대한 인지와 그에 따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모든 억압적 상황에 처해있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이달의 공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시대의 담론을 함축한 미술이 걸린다.
발레단의 희극이 보석처럼 무대에서 빛난다.
7월, 공연들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색에 빠져들 시간이다.



돈키호테

기간 2018년 7월 20일 ~ 2018년 7월 22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낭만과 정열이 돋보이는 밝고 경쾌한 희극이다. 2015년부터 충무아트센터와 유니버설발레단이 선보인 공연 중 가장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무대로 호평받았다. 작품은 소설과 달리 매력적인 선술집 딸 키트리와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 주인공으로, 낭만적인 노년의 돈키호테가 모험을 나선 도중 젊은 연인 키트리와 바질을 만나 펼쳐지는 에피소드와 사랑을 담는다. 영국 저명 무용평론가 데브라 크레인 은 더 타임즈를 통해 "무대 전체가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하나의 보석이었다"고 극찬했다.

월간 교정 이벤트

#1

특별함으로 간직될 일상을 선물합니다

긴장으로 가득한 나날을 벗어나 딱 하루라도 문화를 즐기며 힐링하고 싶다면? 월간 <교정> '어느 멋진 날'에 초대합니다.

3인 이내의 동료직원과 함께 신청해주세요.
공연 관람의 기회와 간식 일체를 제공합니다.



#2

자녀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세요

바쁜 일상으로 자녀와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면, 월간 <교정> '아빠! 어디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가족이 함께 즐거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거주지 주소와 참여할 가족의 인원수를 꼭 말씀해주세요.



접수 방법

1. 간단한 신청 사연을 적어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로 보낸다. (소속, 직급, 이름, 전화번호 필수!)
2. 당첨 전화가 오면 즐겁게 받는다.

* 특별한 날이 더욱 오래 기억되도록, 기념사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교정>에 실어드립니다.

2018년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은
이산가족 교류의 토대입니다.

생사확인이 되면 가족을 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고,
직접 만나는 대면상봉은 물론 화상상봉, 고향방문, 우편물 교환과 같은
여러 형태의 교류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이산가족 전수조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사 기간

2018년 6월 11일 ~ 2018년 8월 10일

조사 내용

- ①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참여 의사
- ② 고향방문 및 영상편지 제작 희망 여부
- ③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재된 개인정보 현행화

조사 방법

1차-우편발송 2차-전화조사 3차-등기발송 4차-방문조사